The image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curved shapes in various shades of green and orange. On the left, a vertical orange stripe is partially visible. The main composition consists of several nested, teardrop-like shapes that curve from the left towards the right. The colors transition from a dark green on the left to a light green in the center, and finally to a bright orange on the right. The overall effect is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BUGGRAPHIC 버그래픽

“나는 벌레에게서 색과 조형을 본다“

“I see colors and shapes out of bugs“

일러두기

길에서 벌레를 만나면 이 책에 표현된 버그래픽을 바탕으로 해당 벌레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버그래픽의 색과 조형은 벌레의 생존방식에서 비롯되어 유인, 보호색, 경고색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벌레의 색과 벌레와 새가 보는 벌레의 색은 다릅니다.

버그래픽은 지구 역사 속 벌레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버그래픽의 형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텍스트는 《쉬운 곤충 책》, 한영식, 진선복스, 2023.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딱정벌레목

9p

나비목

20p

벌목

42p

노린재목

63p

잠자리목

1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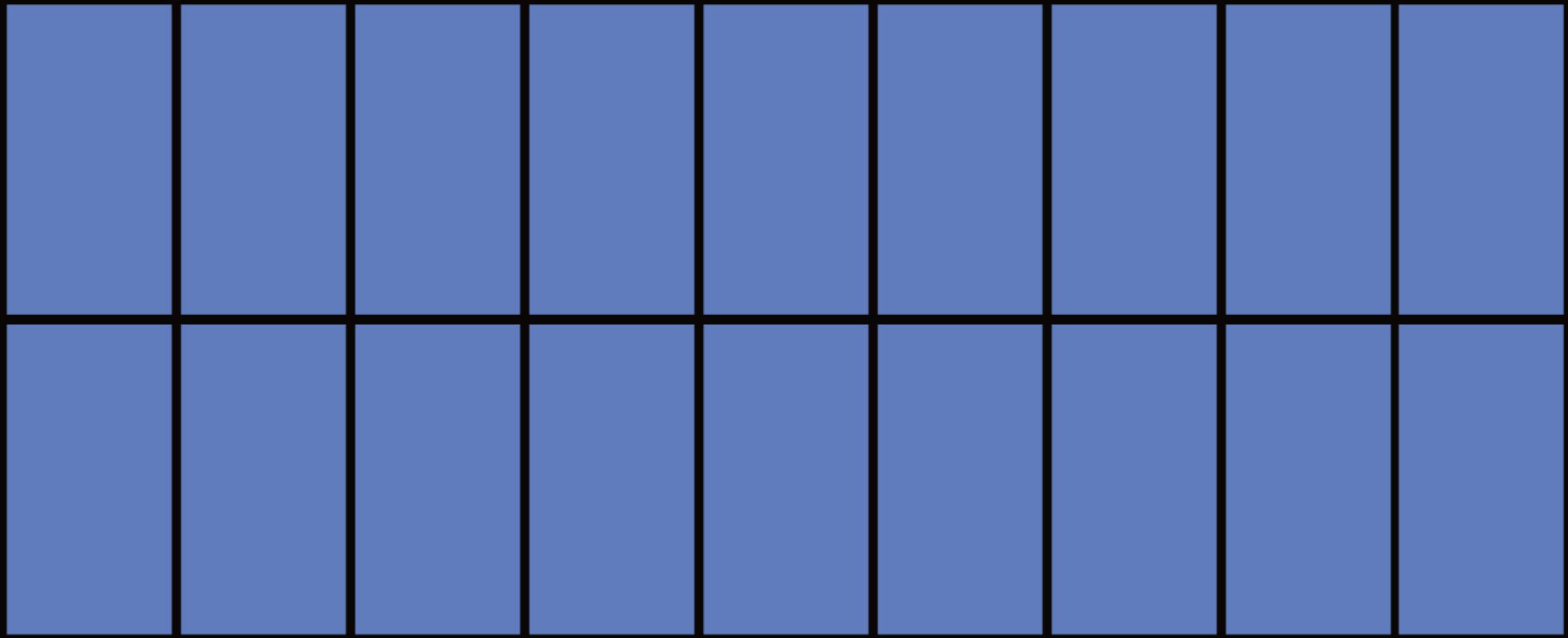
에사키뿔노린재(뿔노린재과)

산초나무, 초피나무, 층층나무, 말 채나무 등에 모여 나무의 즙을 빨아 먹고 산다. 몸은 황록색이고 크기는 11~13mm이다. 앞가슴등판 위쪽은 황색을 띠며 작은방패판에 흰색 또는 연 황색 하트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4~11월에 출현한다. 일본인 곤충학자 '에사키(Bsaki)'에서 유래되어 이름이 지어졌다. 암컷은 약충이 알에서 부화 되어 2령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습성이 있어서 모성애가 강한 곤충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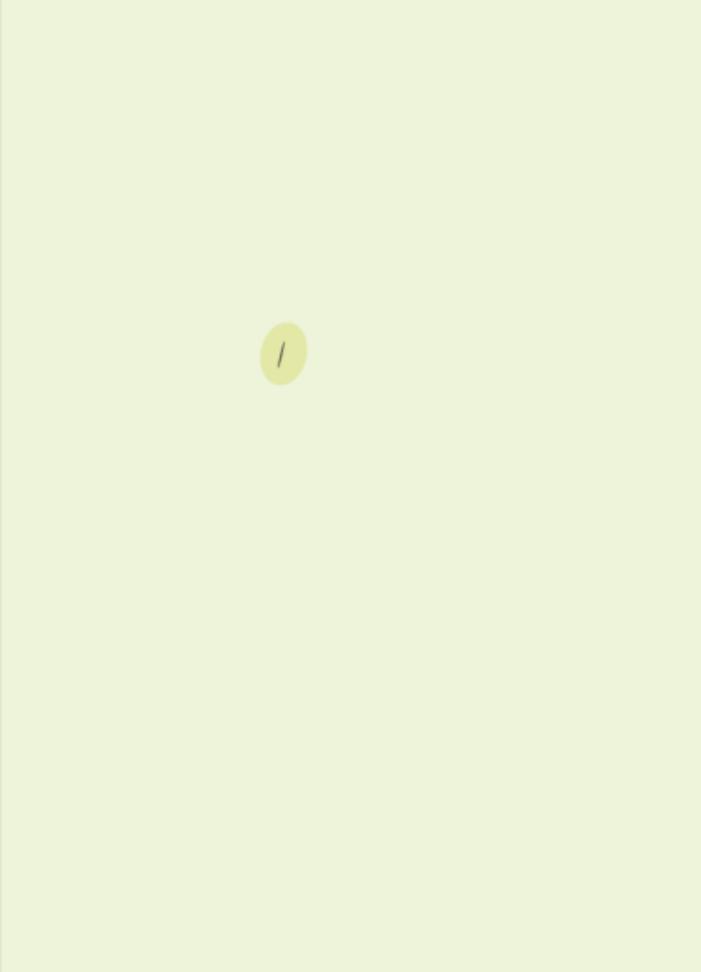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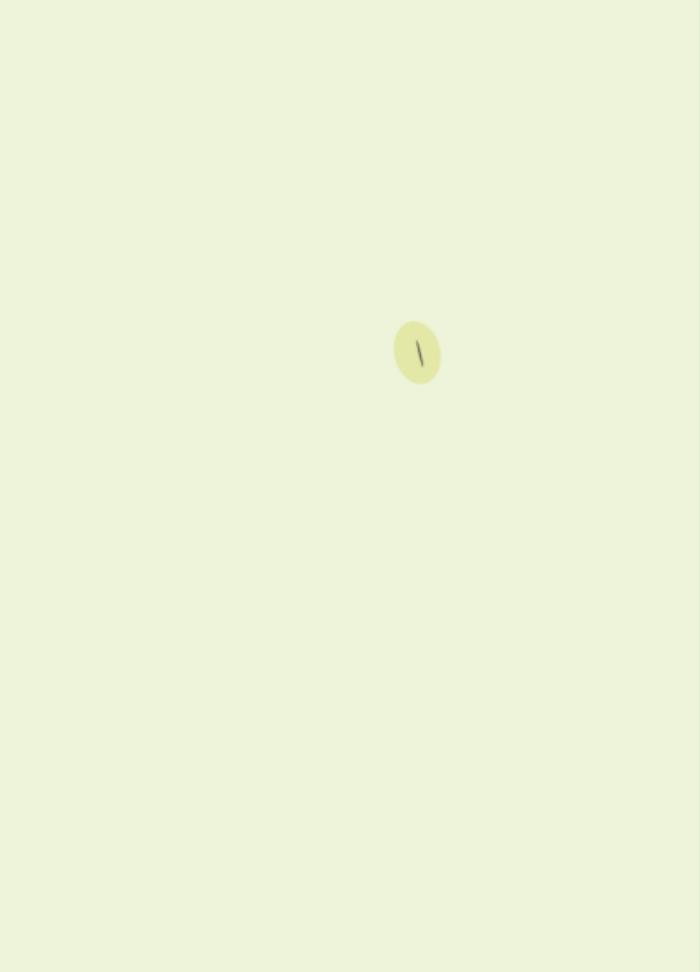
주홍박각시(박각시과)

산과 들에 살며 낮에는 풀숲에서 쉬고 밤이 되면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온다. 몸과 날개가 주홍색을 띠는 아름다운 빛의 박각시로 크기는 57~63mm이다. 앞날개에 2개의 비스듬한 띠무늬가 있으며 5~9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배마디마다 눈알 무늬가 줄지어 있어서 뱀처럼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좌우로 크게 흔드는 습성이 있다. 유충은 털부처꽃, 봉선화, 물봉선 등의 잎을 갉아 먹고 산다. 다 자란 유충은 번데기로 월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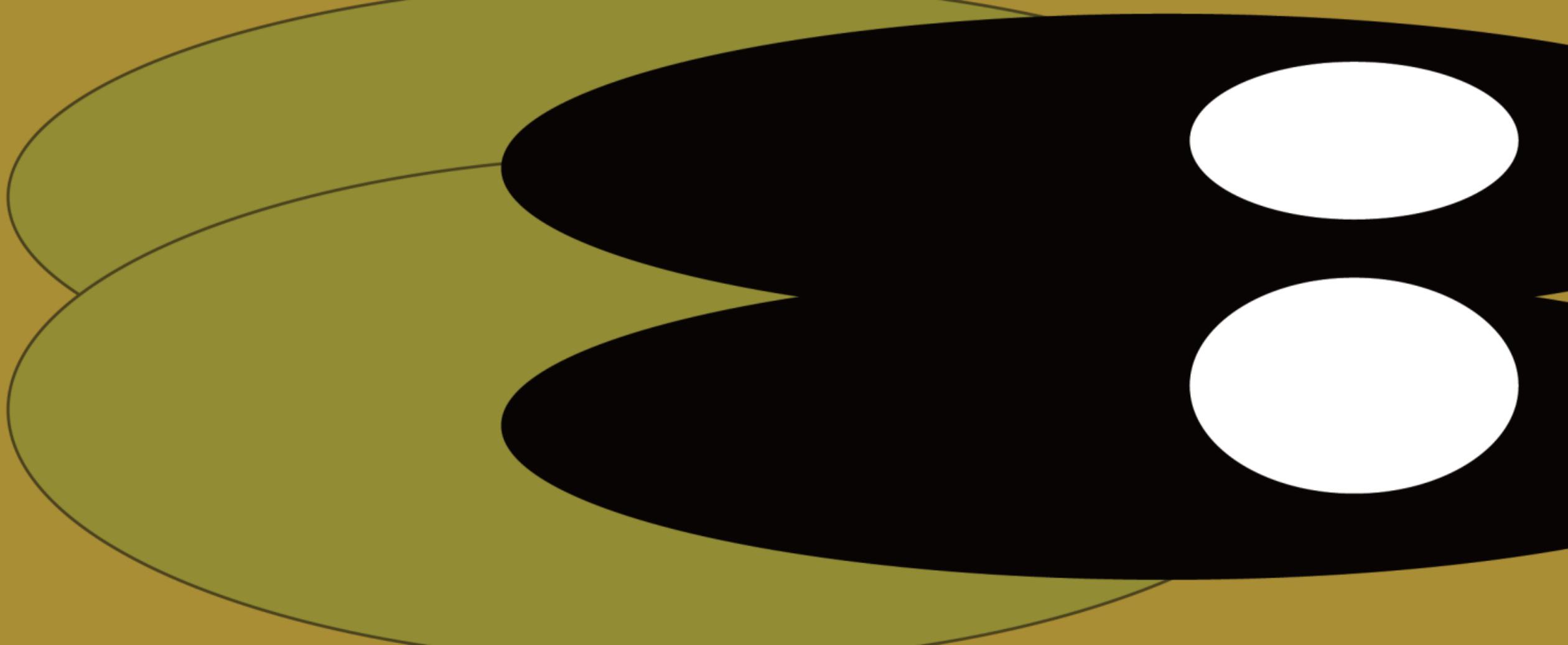
흘쭉밀잠자리(잠자리과)

습지, 논, 하천을 날아다니며 곤충류를 사냥한다. 몸은 암수 모두 미성숙일 때는 연갈색을 띠고 성숙하면 수컷은 청회색으로 변하며 크기는 45~47mm이다. 날개 끝에 깃동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성숙한 수컷은 깃동 무늬가 거의 없다. 밀잠자리류 중 에서 몸이 흘쭉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8월에 출현한다. 암컷은 물 흐름이 있는 작은 하천에 타수산란한다. 유충은 하천의 퇴적층에 살며 겨울에 유충으로 월동한다.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산누에나방과)

밤에 불빛에 유인되어 잘 날아오는 대형 나방이다. 날개는 전체적으로 옥색을 띠고 날개 꼬리가 매우 길게 발달 되어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크기는 95~117mm이다. 날개에 4개의 둥근 눈알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5~8월에 출현한다. 천적에게 들리면 눈알 무늬를 갑자기 노출시켜 천적을 깜짝 놀라게 하여 도망친다. 유충은 녹나무, 단풍나무 등을 먹고 산다. 연녹색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로 월동한다. 연 2회 발생한다.



크로바잎벌레(잎벌레과)

산과 들에 자라는 썩, 들깨, 콩, 토끼 풀, 배추, 당근 등의 다양한 식물을 갉아 먹고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알 모양이고 크기는 3.6~4mm이다.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적갈색이고 딱지날개에 2개의 둥근 연황색 점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끼풀(클로버)을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10월에 출현한다. 가지, 들깨, 호박, 콩, 배추 등을 먹고 살아서 작물 해충으로 손꼽힌다. 유충은 식물의 뿌리를 갉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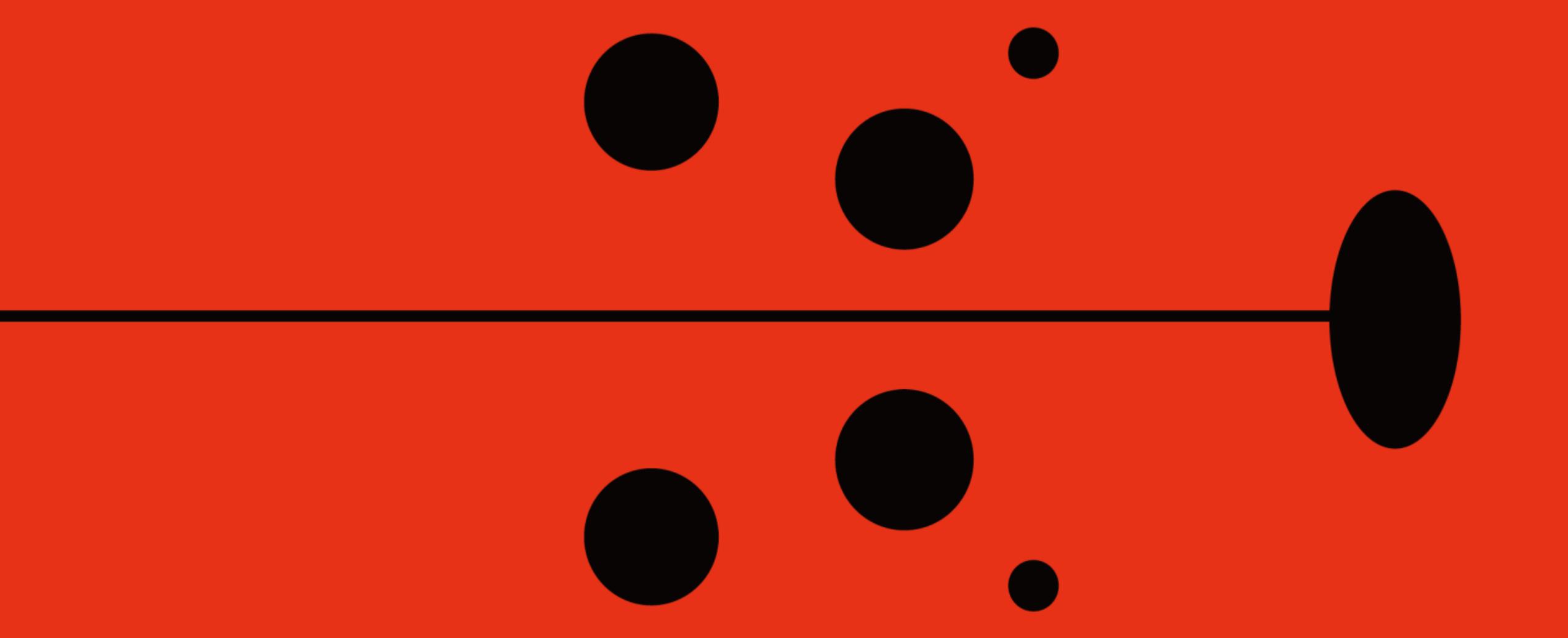


가로줄노린재(노린재과)

산과 들, 경작지에서 족제비싸리, 비 수리, 콩, 팥 등의 콩과 식물의 즙을 빨아 먹고 산다. 몸은 녹색이고 검은색 점각이 많으며 크기는 9~11mm이다. 더듬이는 붉은색이고 다리는 녹색을 띠며 앞가슴등판 양옆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등판에 가로줄 무늬가 선명하게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11월에 출현한다. 가로줄 무늬가 흰색이면 수컷이고 붉은색이면 암컷이다. 약충은 타원형이고 배에 검은색과 붉은색 무늬가 있다.

애홍점박이무당벌레(무당벌레과)

숲속의 나뭇잎이나 풀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검은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크기는 3.3~4.9mm이다. 전체적인 생김새가 군인이 쓰는 철모를 닮았다. 딱지날개에 2개의 둥근 붉은색 점무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3~11월에 출현한다.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는 유충은 나무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을 갖고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유충은 활엽수의 나무껍질에 붙어서 깍지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칠성무당벌레(무당벌레과)

산이나 강가의 풀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충과 유충 모두 진딧물을 잡아먹고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붉은색 또는 주황색을 띠며 크기는 5~8.5mm이다. 딱지날개에 7개의 점무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둥근 점무늬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에 1개가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무당벌레류 중에서 가장 흔하며 3~11월에 출현한다. 무더운 여름에는 여름잠(하면)을 자기도 한다.



십이흰점무당벌레 (무당벌레과)

산과 들의 나뭇잎이나 풀잎에서 부지런히 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적갈색을 띠며 크기는 3.1~4.9mm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숲속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찾을 수 있다. 딱지날개에 12개의 둥근 흰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다. 잎사귀 가장자리를 기어다니며 물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2~11월에 출현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자주 발견할 수 있다.

0

노랑나비(흰나비과)

햇볕이 잘 드는 경작지, 산지, 하천 등의 풀밭을 매우 빠르게 날아다니며 개 망초, 토끼풀, 유채, 민들레, 산국 등의 꽃에 모여 꿀을 빨다. 날개는 황색이고 가장자리에 검은색 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38~50mm이다. 개체 수가 많아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비로 3~11월에 출현한다. 수컷은 황색을 띠지만 암컷은 황색형과 흰색형이 있다. 유충은 자운영, 벌노랑이, 비수리, 싸리 등을 갹아 먹고 산다. 번데기로 월동하며 연 3~4회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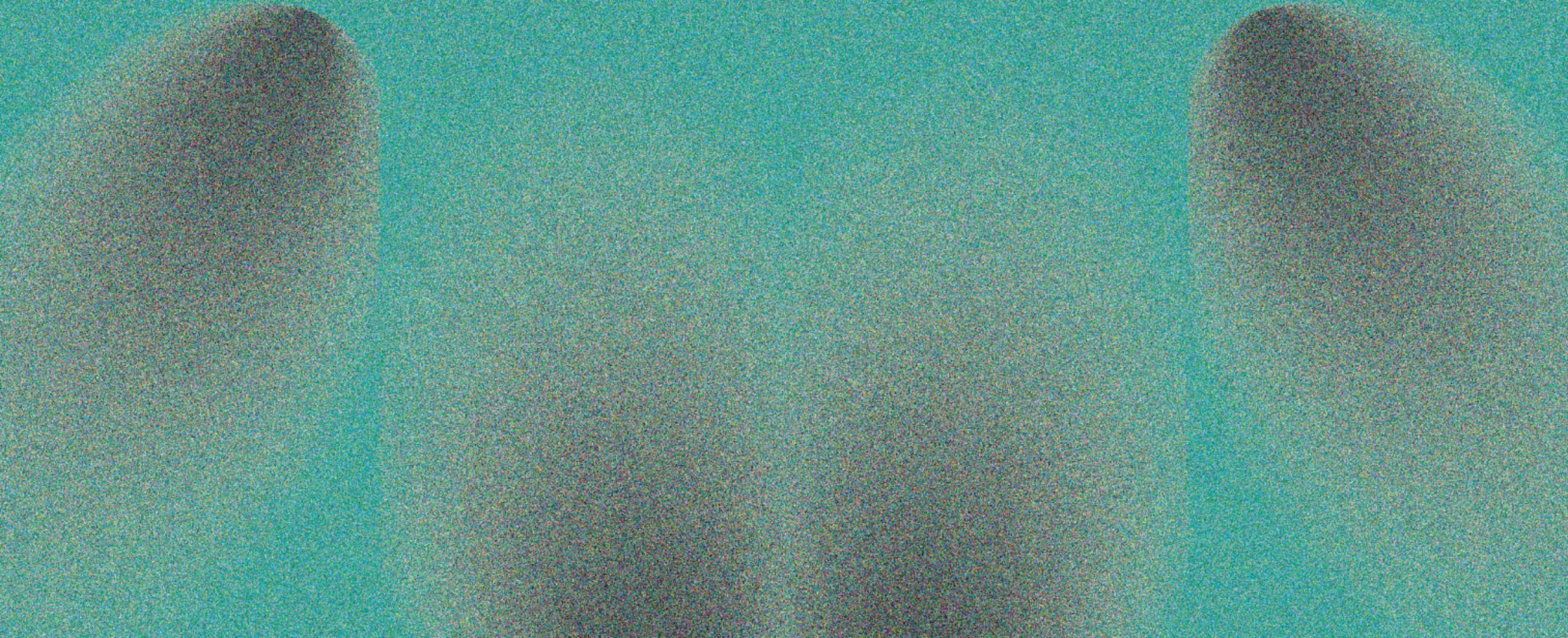


시기도굴빛부전나비(부전나비과)

굴색 날개에 검은색 점무늬가 도시 거리처럼 보여서 이름이 지어졌다. 유충은 떡갈나무, 참나무 등 숲속에 자라는 나뭇잎을 갉아 먹고 산다. 두 나비 모두 알로 월동한다.

꿀빛부전나비 (부전나비과)

낮은 산지의 나뭇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꿀색을 띠고 크기는 34~37mm이다. 숲속을 날며 꿀을 빨고 5~8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등을 갉아 먹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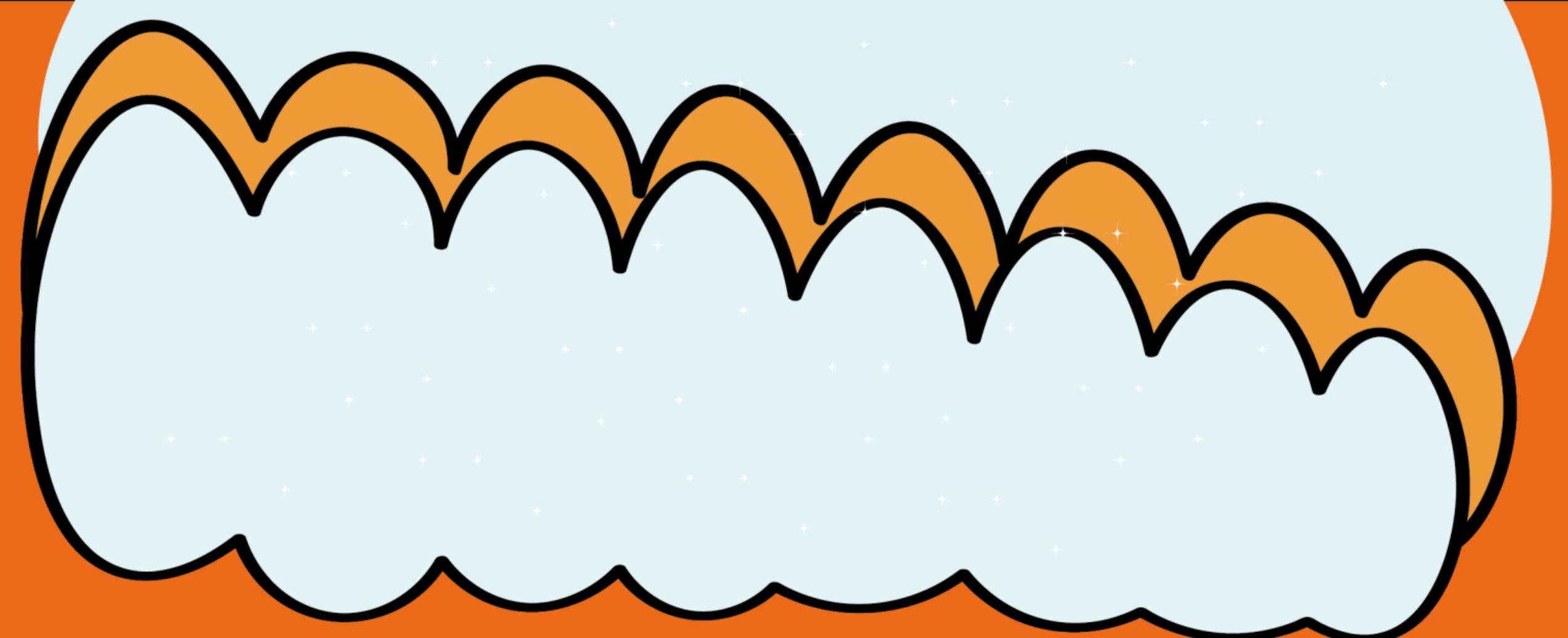
산녹색부전나비(부전나비과)

계곡이나 산길 주변을 날아다니며 사철나무, 개망초, 큰쥐똥나무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땅에 앉으면 날개를 잘 포개어 접으며 크기는 31~37mm이다. 수컷의 날개 윗면이 광택이 있는 녹색이고 참나무류가 많은 산지에 산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8월에 출현한다. 암컷은 날개 윗면이 흑갈색이다. 유충은 줄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의 잎을 갉아 먹고 살며 찌빵 모양을 닮았다. 알로 월동하고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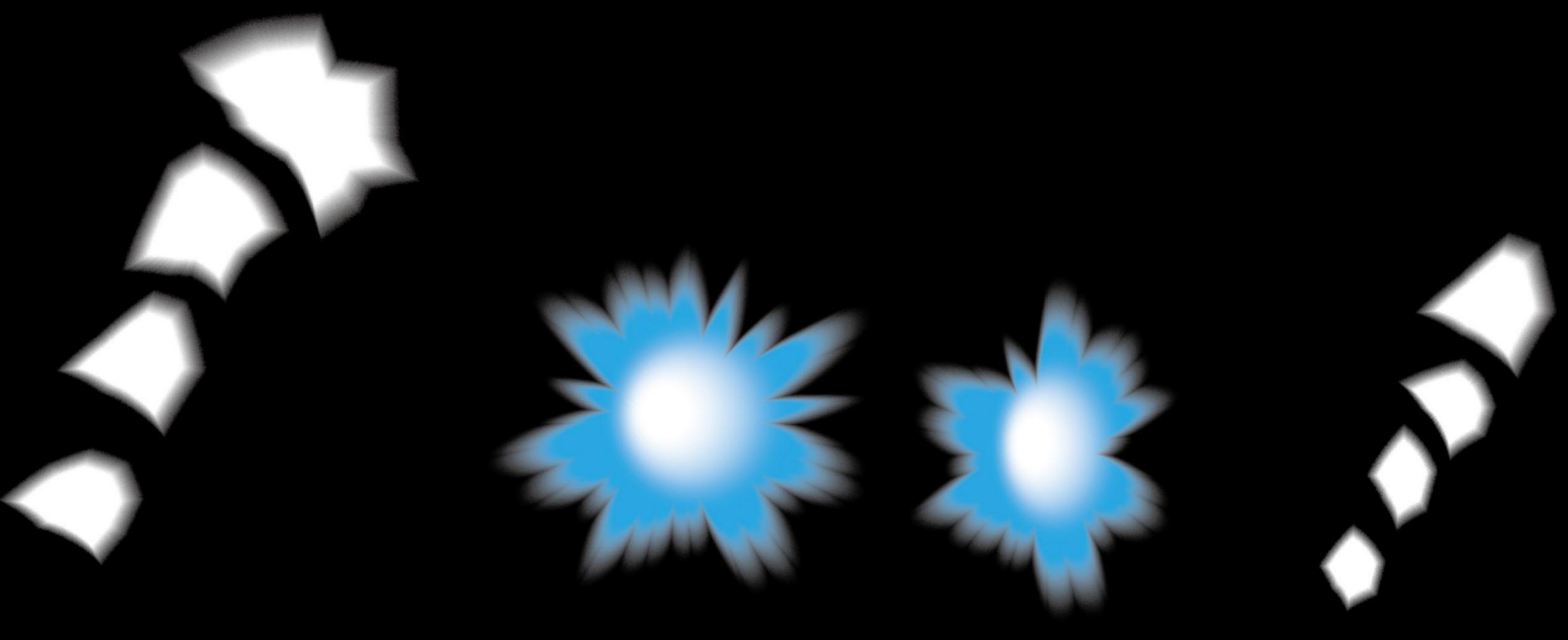
굴뚝나비(네발나비과)

산지나 평지의 풀밭을 날아다니며 엉겅퀴, 개망초, 꿀풀, 큰까치수염 등의 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날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크기는 50~71mm 이다. 날개 빛깔이 굴뚝처럼 검게 생기고 흰색 무늬가 굴뚝의 연기 같아 보여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9월에 출현한다. 눈알 무늬가 눈 같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뱀눈나비'라고 불린다. 유충은 벼과의 참억새, 새포아풀 등을 갹아 먹고 산다. 겨울에 유충으로 월동하고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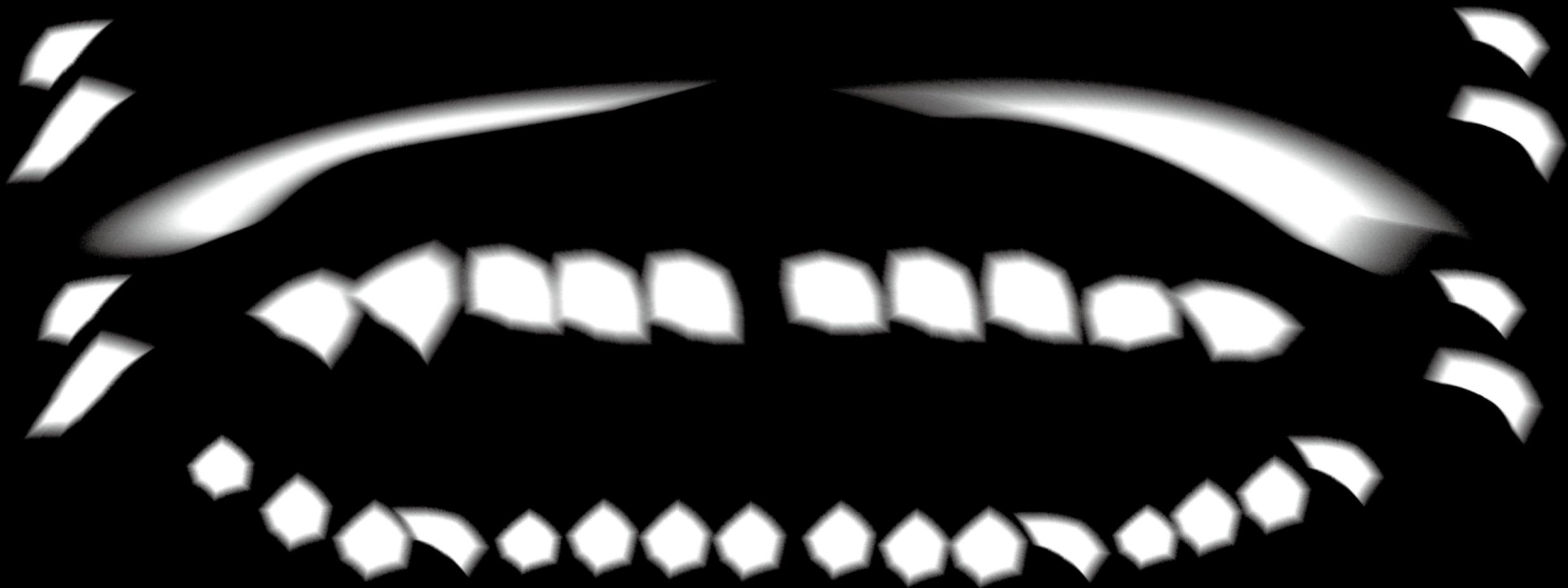
은판나비(네발나비과)

산지를 매우 빠르게 날아다니며 나뭇진을 빨아 먹고 산다. 햇빛을 받으면 날개의 은색 무늬가 반짝거려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크기는 71~89mm이다. 중부 이북에 사는 한랭성 나비로 6~8월에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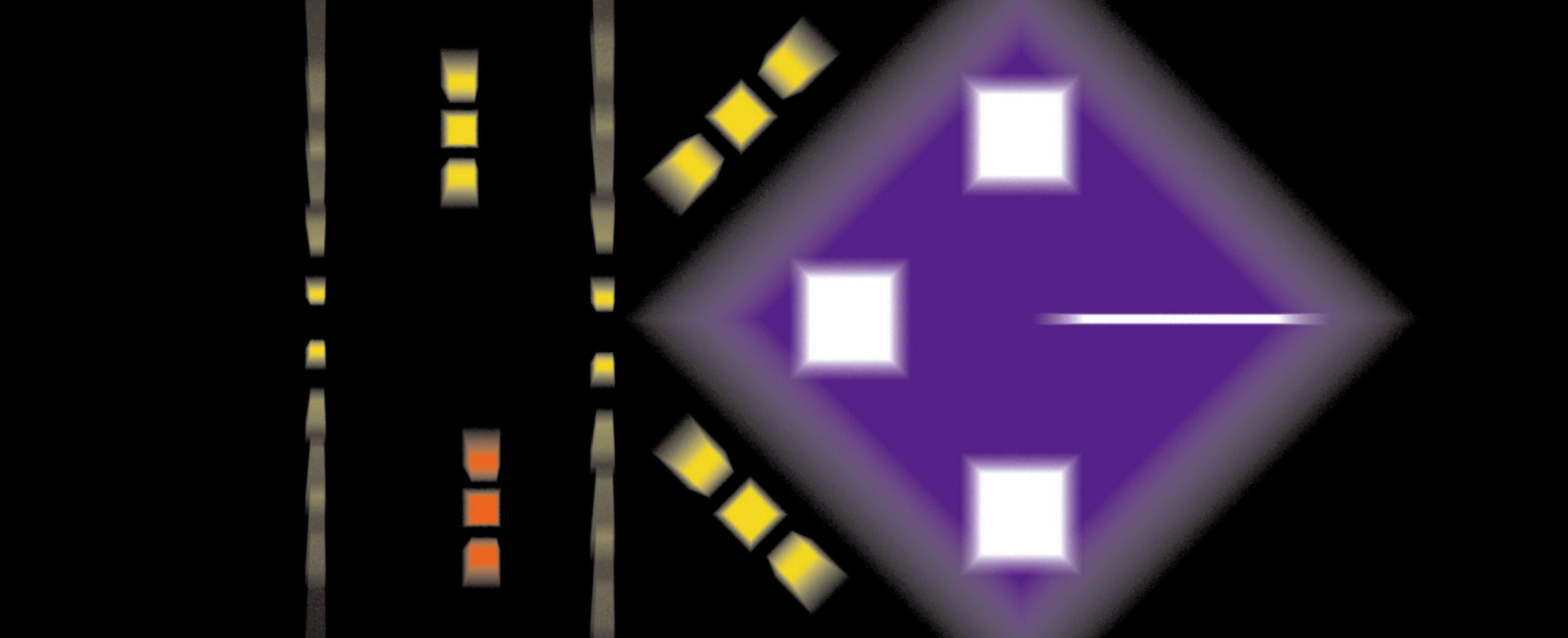
은판나비(네발나비과)

이른 아침에는 축축 한땅과 동물의 사체에 잘 모인다. 먹이 식물 주변에서 짹짹하고 잎 위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 유충은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느티나무를 갉아 먹으며 자란다. 겨울에 유충으로 월동 하며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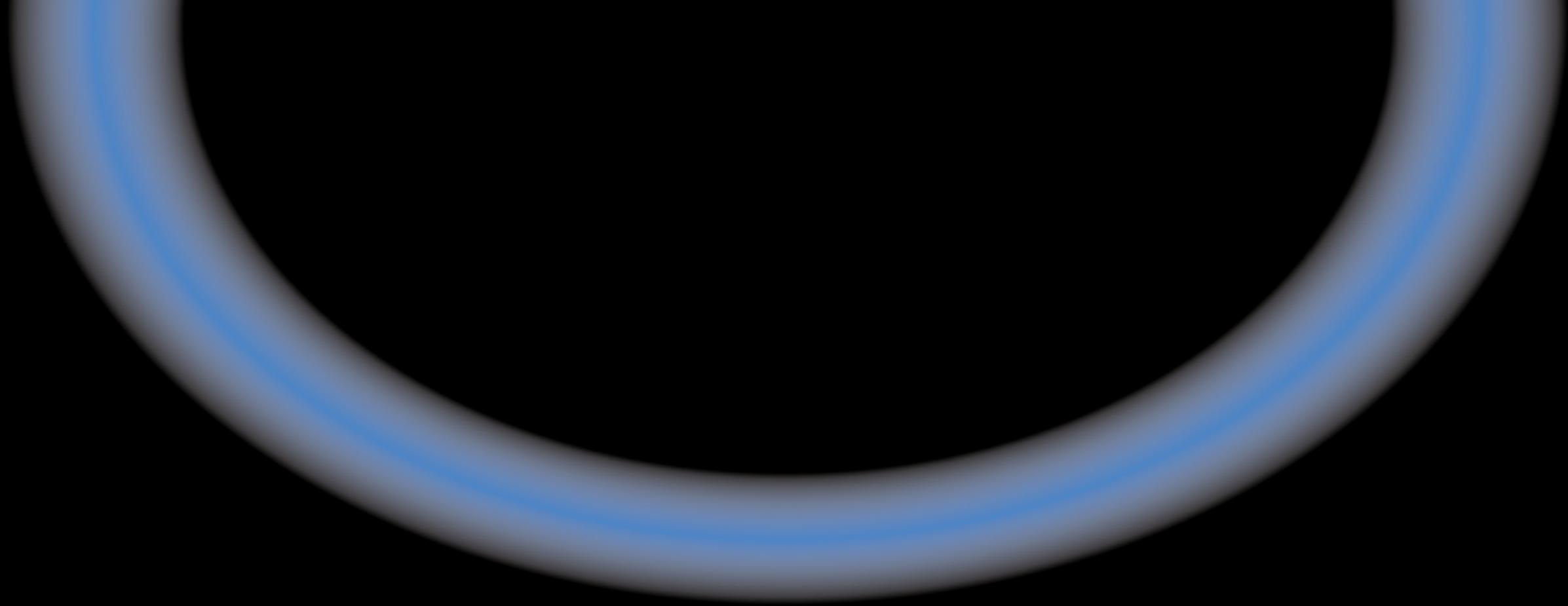
세줄나비(네발나비과)

숲속의 활엽수림이나 단풍나무가 자라는 마을 주변에 산다. 날개는 검은 색이고 크기는 54~65mm이다. 날개에 3개의 흰색 줄무늬가 뚜렷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계곡 주변의 땅에 내려앉아서 물을 먹거나 떨어진 과일의 즙을 먹고 살며 5~7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등을 갉아 먹고 산다. 유충으로 월동하며 연 1회 발생 한다. 줄나비(네발나비과)는 날개에 흰색 줄무늬가 1개뿐이어서 '세줄나비'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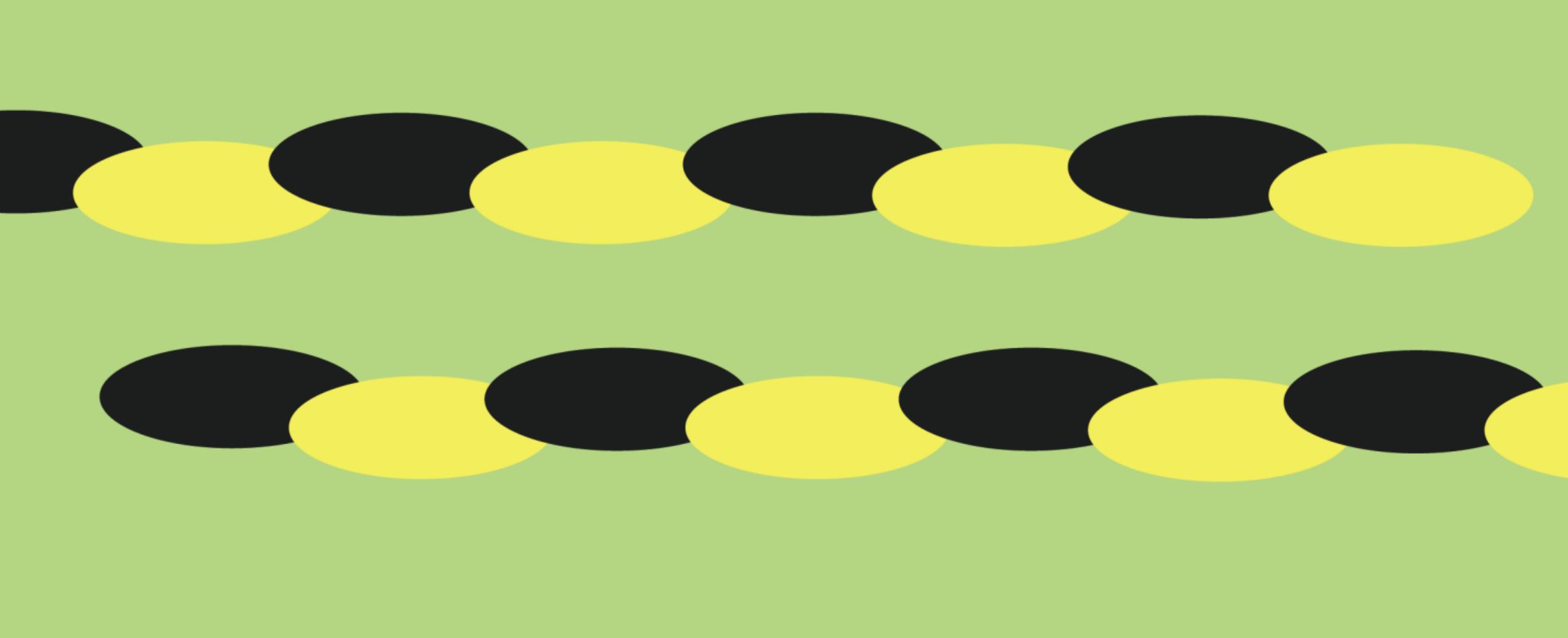
왕오색나비(네발나비과)

낮은 산지나 마을 주변의 잡목림에서 참나무류의 나뭇진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산다. 날개는 검은색이고 가운데에 진한 보라색 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71~101m이다. 수컷은 오전에 축축한 물가에 잘 모이고 오후에는 산꼭대기에서 암컷이 나타나면 뒤쫓는 텃세 행동을 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오색나비류 중 가장 크며 6~8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풍계나무, 팽나무를 갉아 먹고 유충으로 월동한다. 연 1회 발생한다.



청띠신선나비(네발나비과)

높은 산지의 활엽수림이나 마을 주변을 날아다니며 참나무류와 버드나무 등의 나뭇진을 먹고 산다. 때로는 꽃 꿀을 먹거나 썩은 과일에도 잘 모여든다. 땅 색깔과 비슷한 날개 아랫면은 땅에 앉았을 때 보호색이 되며 크기는 55~64mm이다. 날개 윗면에 청색의 띠 무늬가 뚜렷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3~10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을 갉아 먹고 산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연 2~3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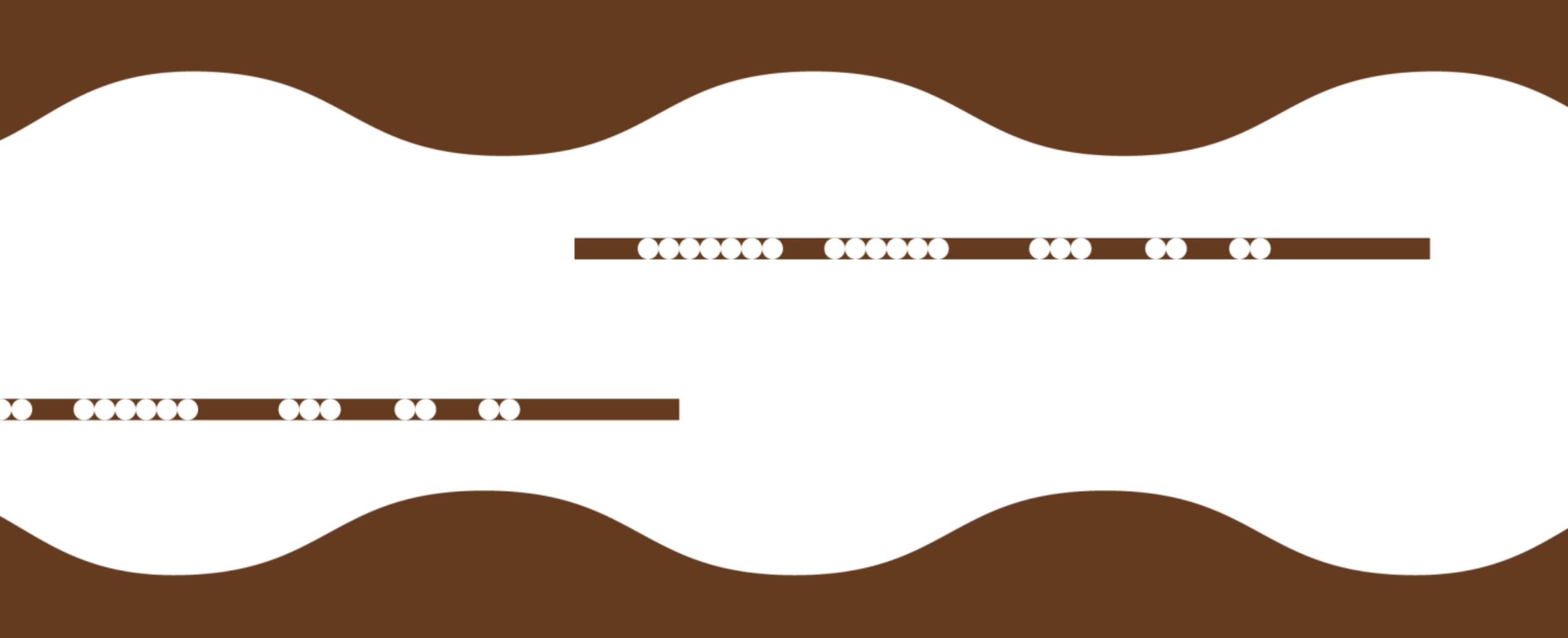


산호랑나비(호랑나비과)

산과 들의 수수꽃다리, 진달래, 철쭉, 복숭아나무, 쉬땅나무, 개망초, 이질 풀, 동자꽃 등의 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넓은 날개에 검은색 줄무늬가 많고 크기는 65~95m이다. 높은 산과 하천, 농경지, 해안의 꽃밭에서 볼 수 있으며 4~10월에 출현한다. '호랑나비와 생김새가 닮았지만 색이 더 노랗고 앞날개의 무늬가 다르다. 유충은 미나리, 기름나물, 당근, 참당귀, 방풍, 갯방풍, 탕자나무, 유자나무 등을 갹아 먹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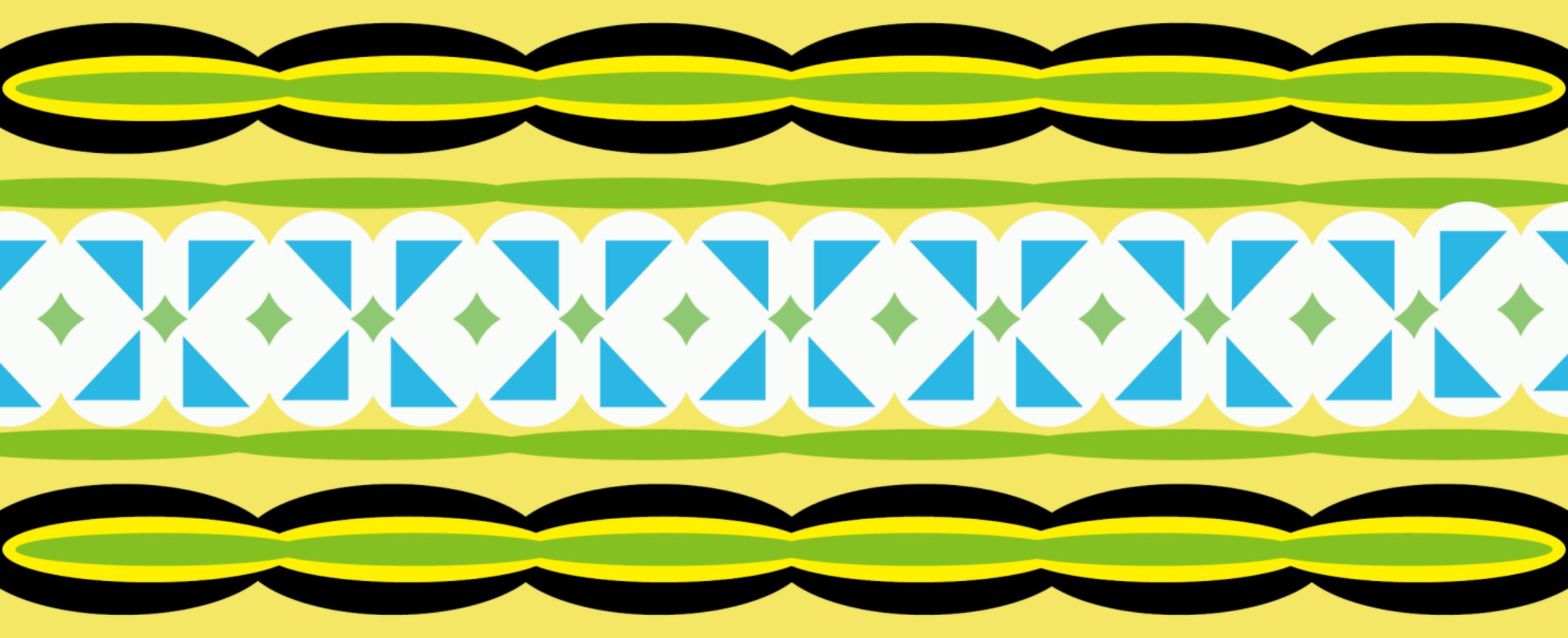
배추흰나비(흰나비과)

농경지, 공원, 하천 등에서 배추, 무, 양배추, 개망초, 민들레, 토끼풀 등의 풀꽃에 모여 꿀을 빨다. 날개는 흰색이고 가장자리에 검은색 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39~52mm이다. 흰색이나 황색 꽃에 잘 모여 들며 3~11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녹색이고 짧은 털과 긴 털이 촘촘하게 나 있으며 배추, 무, 양 배추, 냉이, 갓 등을 갉아 먹고 산다. 마을 근처의 십자화과 식물 주변에서 번데기로 월동하며 연 4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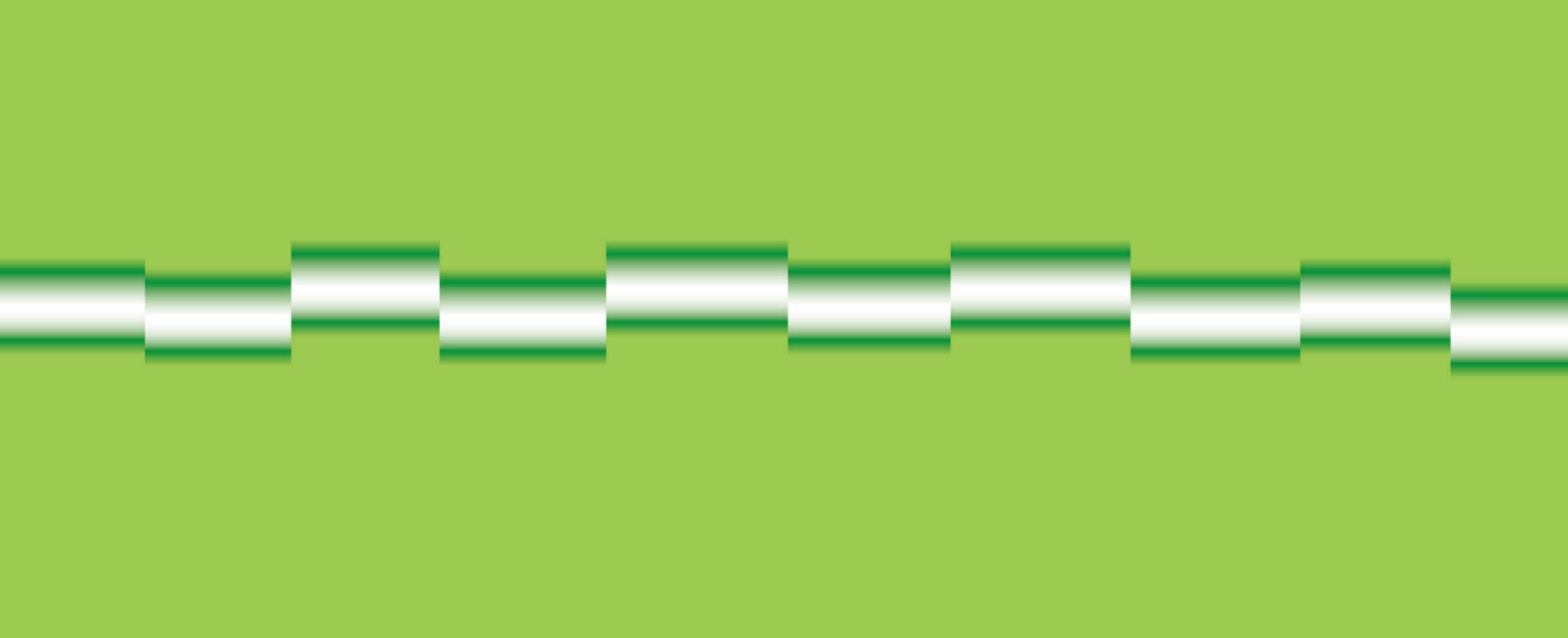
배추좀나방(집나방과)

날개 등면이 회색 또는 흰색이며 크기는 12mm 정도이다. 앞날개 양옆에 물결무늬가 있다. 유충은 케일, 무, 배추 등을 갉아 먹어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킨다. 봄에 출현하는 소형 나방으로 4~5월에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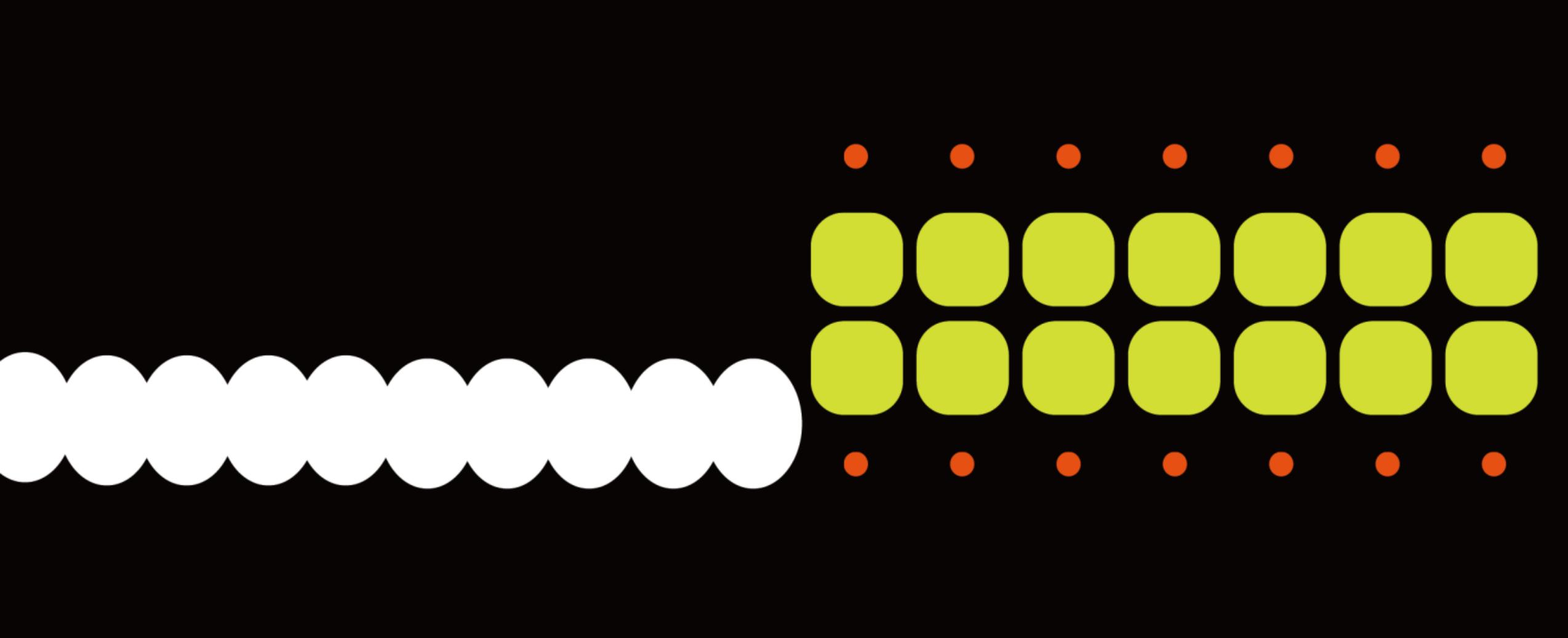
검은푸른뺨기나방(뺨기나방과)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나방으로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전체적으로 선명한 녹색이고 크기는 21~25mm이다. 정삼각형 모양이며 개체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5~8월에 출현한다. '뺨기'라고 불리는 유충은 연녹색을 띠며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다. 유충은 단풍나무, 느릅나무, 버나무, 버드나무류, 참나무류의 잎살을 갉아 먹고 산다. 겨울에 고치 속에서 유충으로 월동하며 연 2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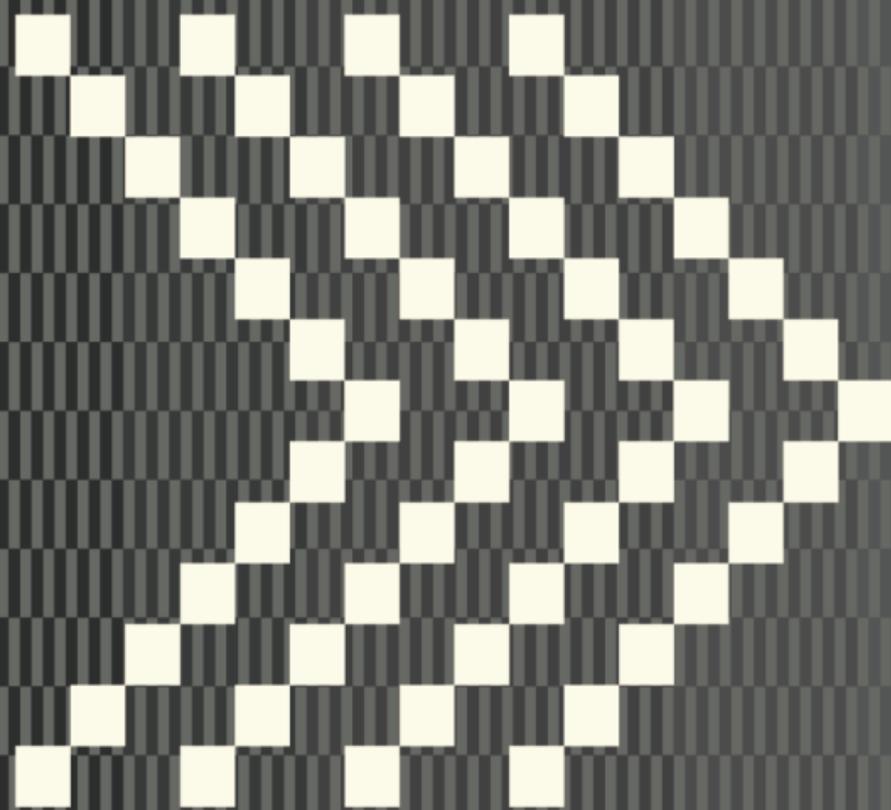
극동뺨기나방(뺨기나방과)

밤에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연한 회갈색이고 검은색 비늘가루가 흩어져 있으며 크기는 23~25mm이다. 개체 수가 비교적 적으며 7~9월에 출현하며 연 1회 발생한다. 유충은 녹색이고 흰색 세로 줄 무늬가 있으며 '쏘는 유충'이라고 해서 '뺨기'라고 부른다. 뺨기에 쏘이면 통통 붓고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유충은 단풍나무, 벚 나무, 층층나무 등을 먹고 산다.



뒤흰띠알락나방(알락나방과)

밤에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흑갈색이고 크기는 55mm 정도이다. 날개 뒤쪽에 흰색 띠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6~8월에 출현한다. 머리는 붉은색을 띠고 더듬이는 빗살 모양이며 수컷은 암컷에 비해 빗살이 더 길다. 유충은 검은색이고 황색 사각형 무늬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알록달록해서 눈에 잘 띈다. 노린재나무의 나뭇잎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모조리 갉아 먹고 산다.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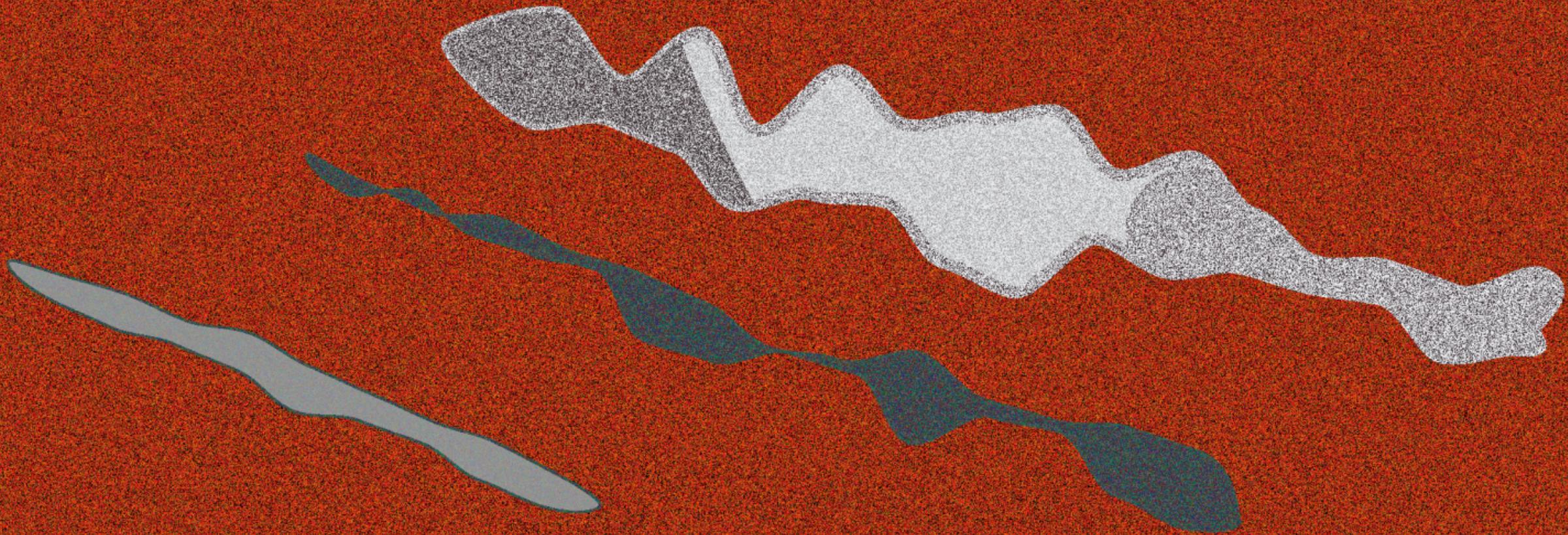
네줄애기잎말이나방(잎말이나방과)

산과 들에 자라는 환삼덩굴 등의 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흑갈색이고 크기는 11~15mm이다. 앞날개에 4개의 톱니 모양 줄무늬가 있고 잎말이나방류 중에서 크기가 작아 '애'가 붙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8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환삼덩굴과 대마 등을 갉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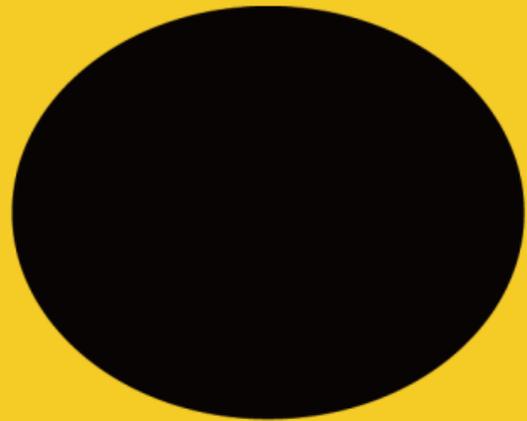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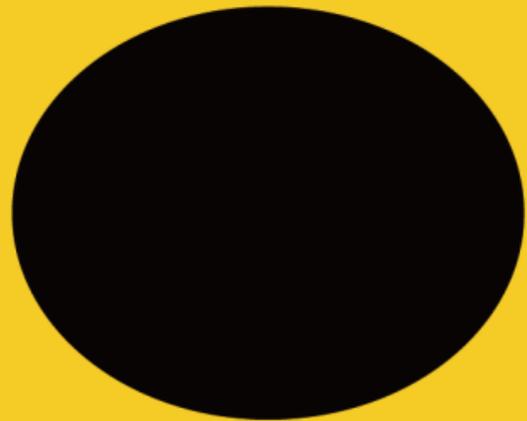
노랑눈비단명나방(명나방과)

밤에 불빛에 잘 날아오는 색깔이 화려한 야행성 나방이다. 날개는 적황색으로 매우 화려한 빛깔을 띠며 크기는 26~33mm이다. 날개 좌우에 2개의 황색 점무늬가 뚜렷하며 6~8월에 출현 한다. 유충은 단풍나무, 양버즘나무, 갈참나무 등을 먹고 산다.



감나무잎말이나방(잎말이나방과)

낮은 산지나 과수원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개는 주황색을 띠고 크기는 20~25mm이다. 몸이 종 모양처럼 생겨서 '종나방(Bell moth)'이라고도 불리며 4~5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기다란 원통 모양으로 몸 길이가 18m 정도이다. 유충은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버드나무류, 왕벚나무, 단풍나무류, 장미류 등 다양한 식물의 잎사귀를 둘둘 말아서 잎살을 갉아 먹고 산다. 밤에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 온다.



점박이큰벼잎벌레(잎벌레과)

산과 들의 잎사귀 위를 기어다니며 참마를 갉아 먹고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황색이며 크기는 5.5~6mm 이다. 겹눈은 둥글고 약간 튀어나왔으며 더듬이는 실 모양이다. 잎사귀나 풀 줄기를 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9월에 출현한다. 앞가슴등판에 4개, 딱지날개에 4개 또는 2개의 둥근 검은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다. 성충으로 월동하고 4월부터 나타나서 활발하게 날아다닌다.



남색산꽃하늘소(하늘소과)

산에 핀 쥐똥나무, 층층나무 등의 다양한 꽃에 모여서 꽃가루를 먹고 산다. 몸은 길쭉하고 전체적으로 남색을 띠며 크기는 10~15mm이다. 수컷은 청록색을 띠고 암컷은 파란색을 띠며 5~7월에 출현한다. 꽃이나 잎에 모여 짹짹기를 마친 암컷은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참나무류의 고사목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부화된 유충은 고사목의 목질을 갉아 먹으며 성장하여 번데기로 변하고 성충이 되어 나무를 뚫고 나온다.

무늬소주홍하늘소(하늘소과)

숲속의 신나무나 단풍나무 꽃에서 꽃가루를 먹는다.
몸은 검은색이고 붉은 색의 지날개에 검은색
타원형 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14~19mm이다.
더듬이가 몸길이 정도로 매우 길며 5~6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단풍나무, 물푸레나무를 먹고
산다. 달주홍하늘소(하늘소과)는 몸은 검은색이고
앞가슴등 판과 딱지날개는 주홍색을 띠며 검은색
점무늬가 있다. 크기는 17~23mm이고 5~7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상수리 나무를 갉아 먹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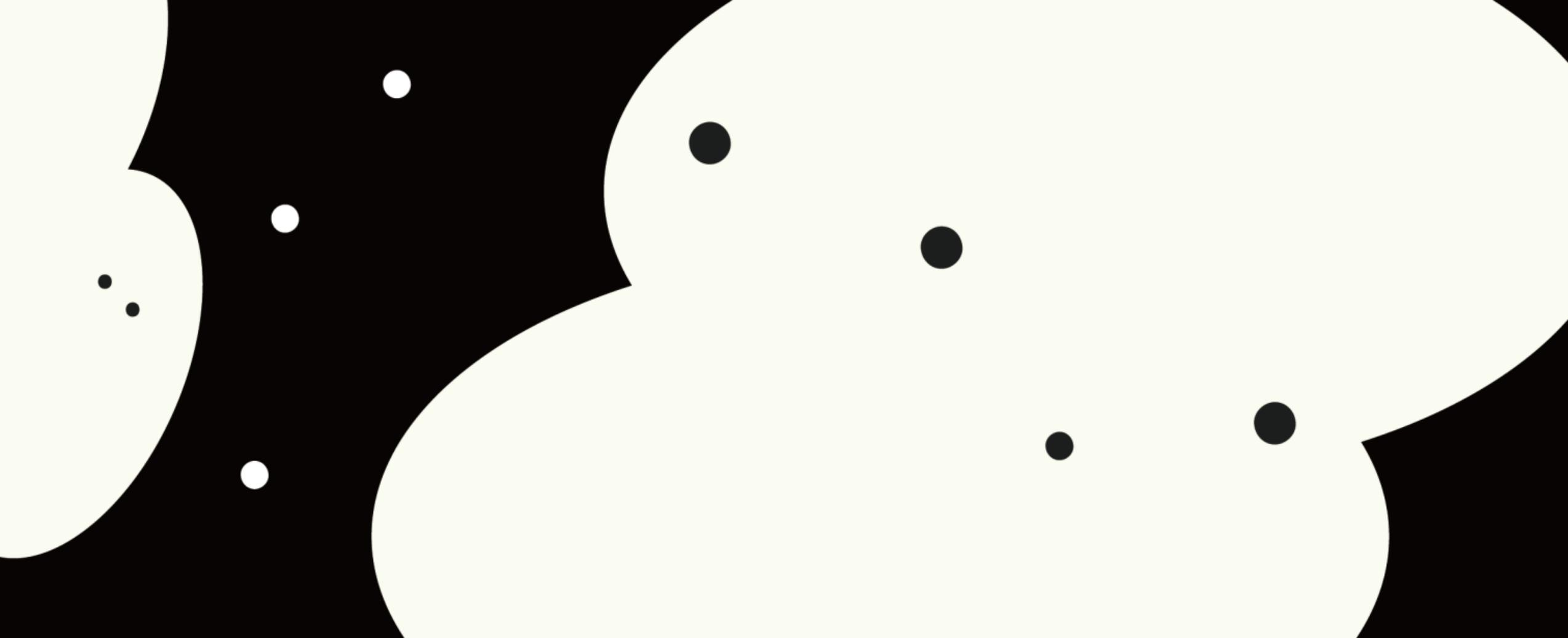


삼하늘소(하늘소과)

산과 들의 잎사귀나 풀줄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회색이고 크기는 10~15mm이다. 딱지날개 봉 합부와 양옆에 3개의 회백색 줄무늬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썩, 삼 등의 줄기를 갉아 먹으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5~7월에 출현한다. 암컷은 썩이나 삼의 줄기에 상처를 내고 알을 낳는다. 유충은 대마, 썩, 엉정귀 등을 갉아 먹고 산다. 특히 삼의 줄기를 잘 먹어서 '삼벌레'라고 부른다.

점날개잎벌레(잎벌레과)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 종류의 꽃에 모여서 꽃가루를 먹고 산다. 몸은 광이 있는 흑청색이며 크기는 3.2~4mm 로 매우 작은 소형 잎벌레다. 몸이 원형이고 다리가 짧아서 '무당벌레'로 착각하기도 한다. 벼룩잎벌레 무리에 속해서 굵게 발달된 뒷다리로 '벼룩'처럼 점프해서 이동한다. 멀리서 보면 둥근 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3~11월에 출현한다. 겨울에 성충으로 월동하고 연 1회 출현한다.



배자바구미(바구미과)

산과 들에 자라는 칩을 먹고 살며 칩 줄기에 상처를 내고 알을 낳는다. 몸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으며 크기는 6~10m이다. 딱지날개의 검은색 무늬가 한복의 조끼인 '배자'를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다. 칩덩굴을 꼭 붙잡고 기다란 주둥이를 찢러 즙을 빨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9월에 출현한다. 앞에 붙어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새똥처럼 보여서 천적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고 때로는 툭 떨어져 의사 행동을 하기도 한다.



목대장(목대장과)

숲속의 꽃이나 잎사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길쭉하며 크기는 12~14mm이다.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좁지만 딱지날개는 매우 길다. 목에 해당하는 앞가슴등판 부위가 삼각형 모양으로 매우 크게 발달해서 목이 크다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산지에 핀 꽃에 잘 모여서 꽃가루를 먹고 살며 5~6월에 출현한다. 생김새와 먹이가 같은 '꽃하늘소'와 함께 발견된다. 유충은 썩은 나무를 먹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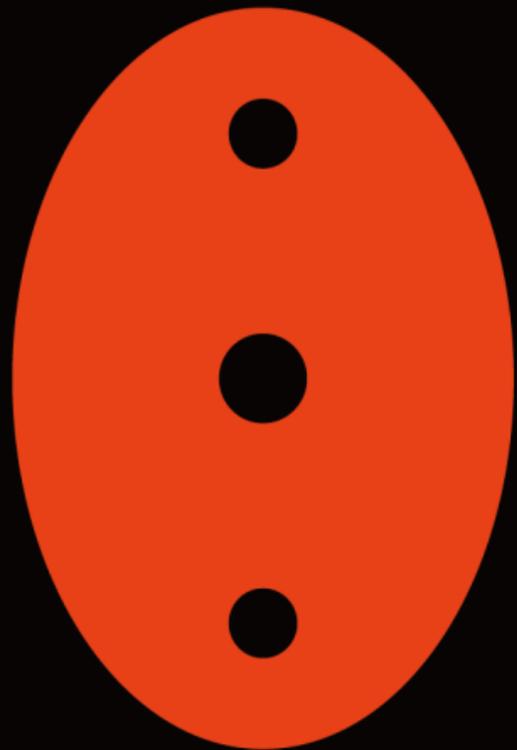


네눈박이송장벌레(송장벌레과)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참나무류 등의 활엽수 위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나비류와 나방류의 유충을 잡아먹고 산다. 동물 사체에 모여 사체나 구더기를 먹고 사는 일반적인 송장벌레와 달리 나무 위아래를 바쁘게 오가며 사냥하는 포식성 송장벌레이다. 몸은 검은 색이고 딱지날개는 연갈색을 띠며 크기는 10~15mm이다. 딱지날개에 4개의 커다란 점무늬가 눈이 박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5~7월에 출현한다.

콩풍덩이(풍덩이과)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잎사귀와 꽃가루를 먹고 산다. 꽃이 핀 풀밭에 무리 지어 모여 식물을 갉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진한 남색을 띠고 광택이 있으며 크기는 10~13mm이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긴 모습이 검은색 '콩'을 매우 많이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11월에 출현한다. '참콩풍덩이와 매우 비슷하게 닮았지만 배마디 양옆과 꼬무니 부위에 흰색 털로 이루어진 점무늬가 없어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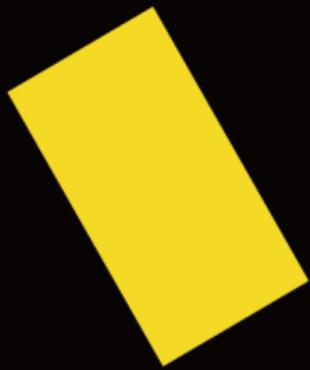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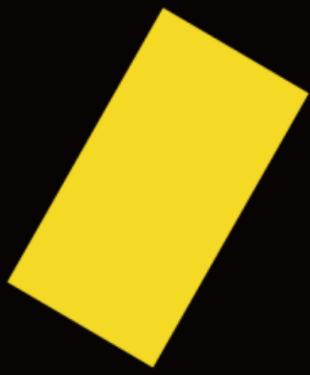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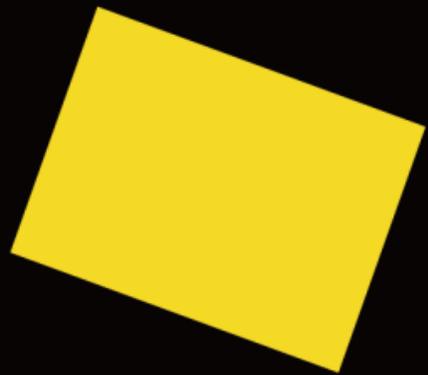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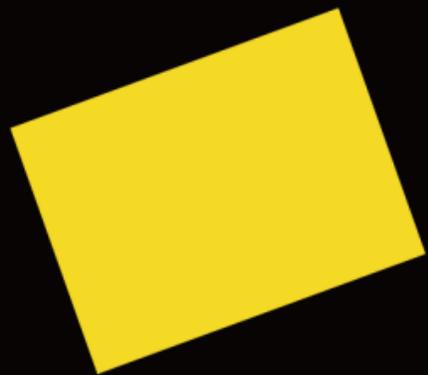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방아벌레붙이과)

산과 들의 풀잎이나 나뭇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원통형으로 매우 길쭉하고 머리, 딱지날개, 더듬이, 다리는 청람색을 띠며 크기는 9.5~16mm이다. 붉은색을 띠는 앞가슴 등판에 3개의 검은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5~6월에 출현한다. 전체적인 생김새가 방아벌레류 곤충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닮았다’는 뜻의 ‘붙이’가 붙어서 이름이 지어 졌지만 방아벌레처럼 툭 튀어 오르지 못하는 못한다.



홍줄큰벼잎벌레 (잎벌레과)

산과 들의 풀잎 사이를 기어다니며 닭의장풀을 갹아 먹고 산다. 몸은 전체 적으로 타원형으로 길쭉하고 크기는 4.3~4.5mm이다. 몸은 붉은색을 띠고 머리는 청색이며 딱지날개에 2개의 굵은 청색띠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사귀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7월에 출현한다. 겨울에 성충으로 겨울나기를 하며 봄이 되면 닭의장풀 주변에서 날아다니며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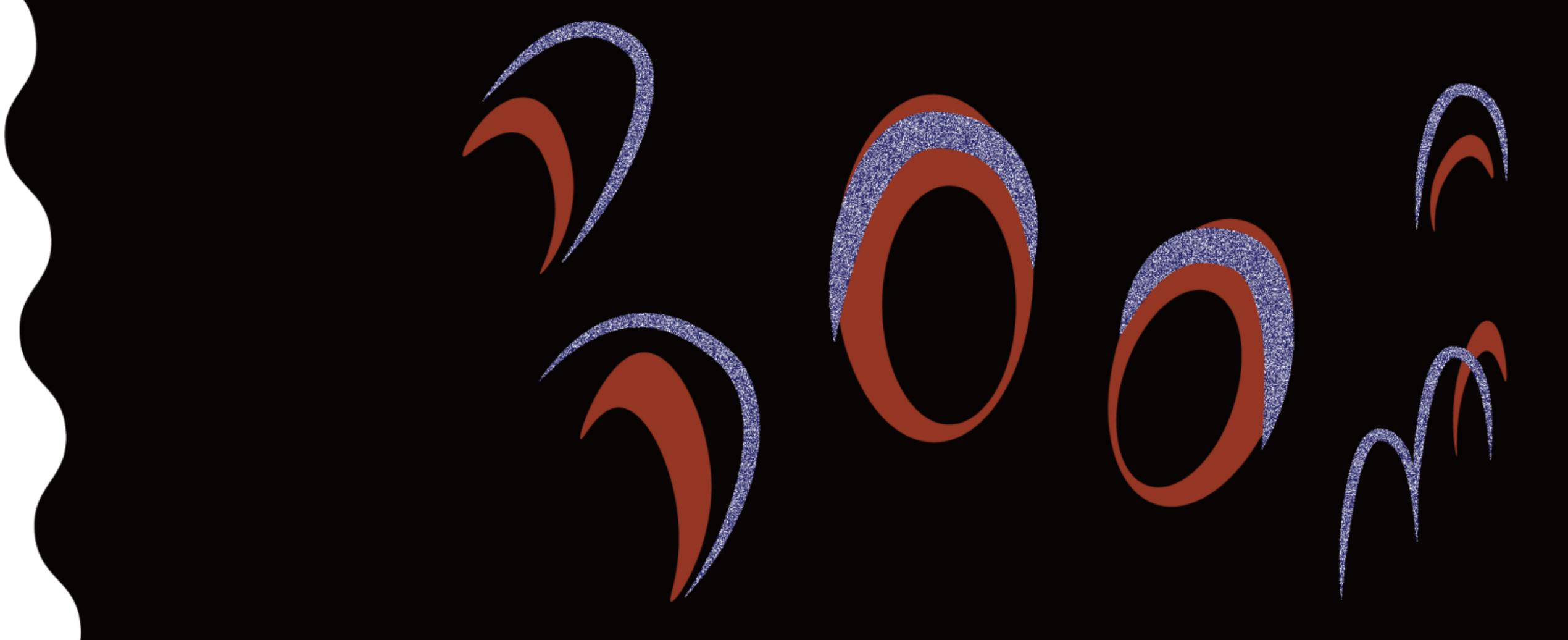
콜체잎벌레(잎벌레과)

산과 들의 풀밭에서 썩, 싸리 등을 갉아 먹으며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짧은 원통형이며 크기는 4~5.2mm이다. 딱지날개에 6개의 굵은 황색 점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곤충학자 콜츠(koltze)에서 유래되어 학명의 종명 'koltzei'이 지어졌고 증명에서 유래되어 이름이 지어졌다. 풀숲의 잎사귀 끝이나 풀 줄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5~7월에 출현한다. 딱지날개가 펼쳐지면 속날개가 나와 날아간다.



십이흰점무당벌레 (무당벌레과)

산과 들의 나뭇잎이나 풀잎에서 부지런히 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적갈색을 띠며 크기는 3.1~4.9mm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숲속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찾을 수 있다. 딱지날개에 12개의 둥근 흰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다. 잎사귀 가장자리를 기어다니며 물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2~11월에 출현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긴꼬리제비나비(호랑나비과)

낮은 산지의 고추나무, 나리, 엉정퀴, 큰까치수염, 누리장나무, 수수꽃다리 등의 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날개는 검은색이고 꼬리돌기가 매우 길게 발달했으며 크기는 60~120mm이다. 계 곡이나 산길의 정해진 경로(나비 길)를 반복하여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으며 4~9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산초나무, 초피나무, 탕자나무, 머귀나무 등을 갹아 먹고 산다. 겨울에 번데기로 먹이식물에 붙어서 월동하고 연 2회 발생한다.



모시나비(호랑나비과)

양지 바른 산지에 핀 엉겅퀴, 기린초, 서양민들레 등의 풀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비늘가루가 없는 날개가 모시옷을 연상시키며 크기는 43~60mm이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은 독특한 물질로 수태낭(짝짓기주머니)을 만들어 암컷의 콩무늬를 막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는 습성을 갖고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6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왜현호색, 산불주머니, 현호색 등의 꽃과 줄기, 잎사귀를 갉아 먹고 산다.

제비나비(호랑나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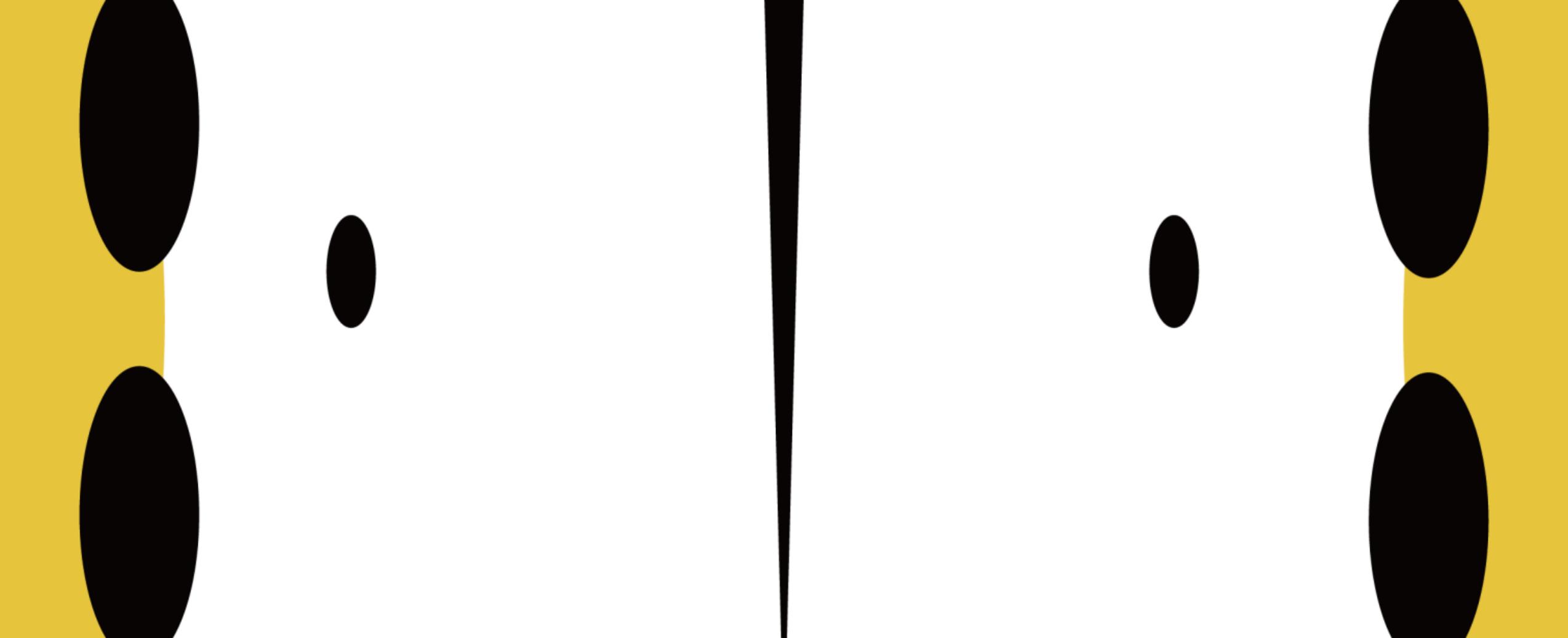
낮은 산지나 평지를 날아다니며 곰취, 엉정취, 철쭉, 계요등, 누리장나무, 자귀나무 등의 다양한 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아름다운 청록색 광택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 크기는 85~120mm이다.

꼬리돌기가 잘 발달된 모습이 '제비'를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9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머귀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황벽나무, 상산 등의 잎 사귀를 갉아 먹고 산다. 겨울에 번데기로 월동하며 연 2~3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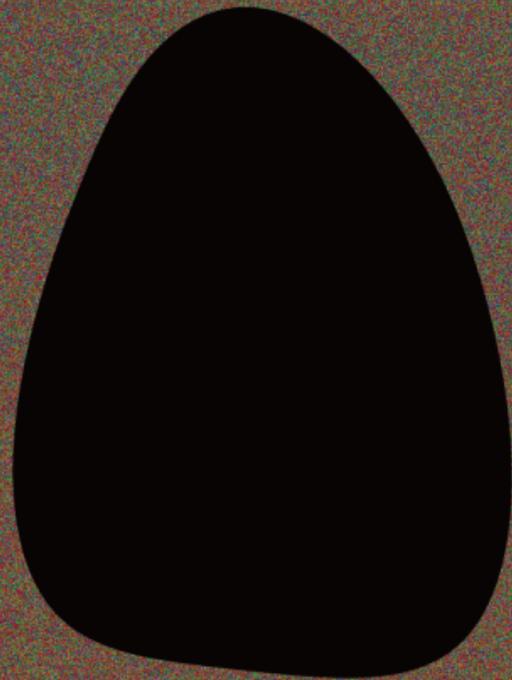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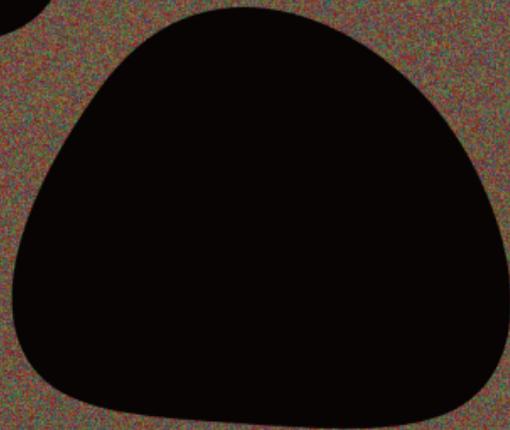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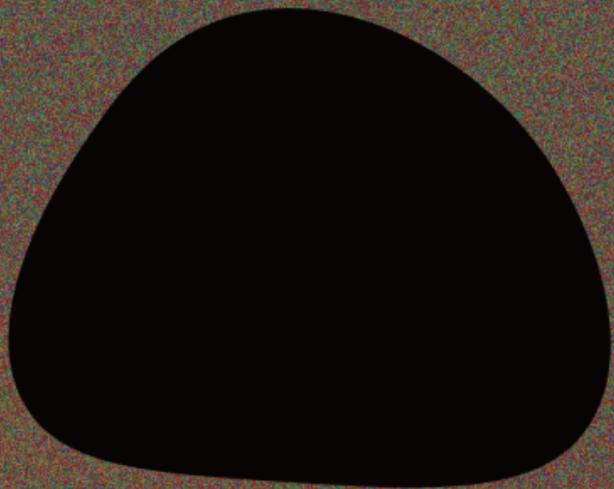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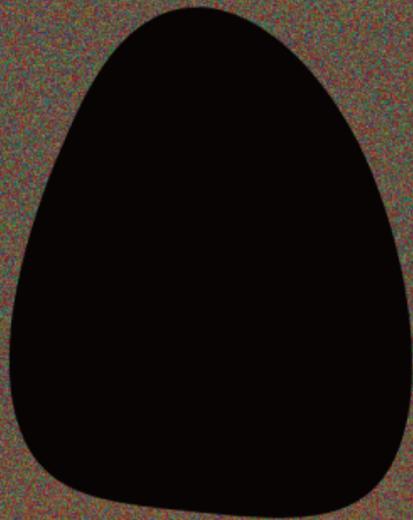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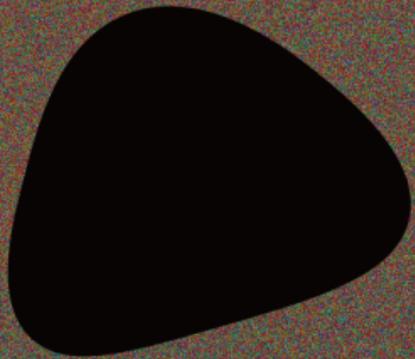
대만흰나비(흰나비과)

낮은 산지나 농경지 주변을 날아다니며 냉이, 개망초, 엉겅퀴, 조이풀 등에서 꿀을 빨다. 날개는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검은색 점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37~46mm이다. 생김새가 '배추나비'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검은색 점 무늬가 날개 아래쪽까지 있어서 구별되며 4~10월에 출현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유충은 나도냉이, 속속이풀을 갉아 먹고 산다. 겨울에 번데기로 월동 하며 연 3~4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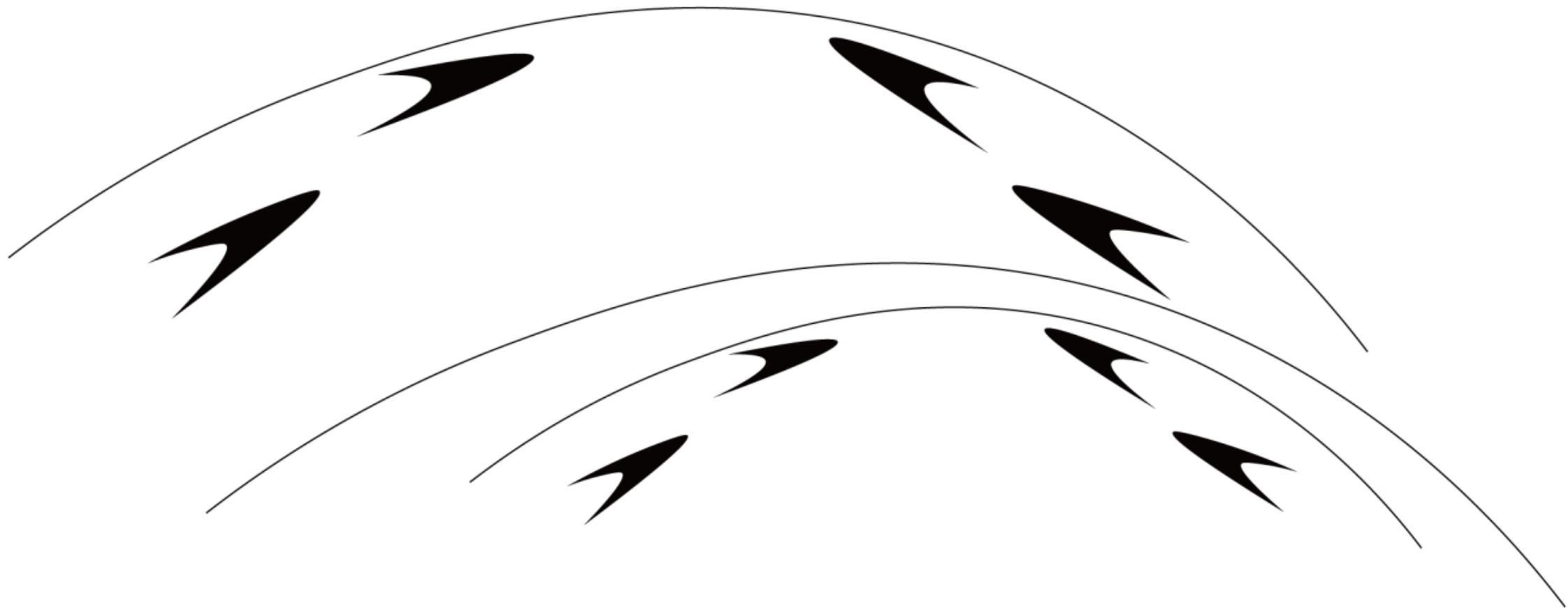
갈구리나비 (흰나비과)

낮은 산지, 농경지, 하천 주변의 풀밭 을 날아다니며 냉이, 민들레, 장대나 물, 유채 등의 꽃에 모여서 꿀을 빨다. 날개 윗면은 흰색이고 날개 끝 가장자리는 황색을 띠며 크기는 43~47mm이다. 앞날개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5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냉이, 나도냉이, 장대나물, 꽃다지 등을 갉아 먹고 산다. 겨울이 되면 번데기로 월동하며 연 1회 발생하기 때문에 봄에만 볼 수 있다.



어깨넓은거위벌레 (거위벌레과)

숲속의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자라는 곳에 산다. 몸은 검은색, 적갈색이 섞여 있고 다리는 황색을 띠며 크기는 5mm 정도이다. 광택이 반질반질한 딱지날개에 불규칙한 모양의 울퉁불퉁한 여러 개의 혹이 가득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5~9월에 출현한다. 어깨에 해당하는 앞가슴등판 부분이 다른 거위벌레류에 비해 매우 넓적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노박덩굴 등의 잎을 돌돌 말아서 요람을 만들어 알을 낳는다.



대모잠자리(잠자리과)

서해안 일대의 퇴적물이 많이 쌓인 습지와 연못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크기는 38~43mm이다. 날개에 3개의 흑갈색 무늬가 있고 제 1~10 배마디에 흑갈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른 봄부터 출현하여 습지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6월에 출현한다. 도시 개발로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었다.



밀잠자리(잠자리과)

습지와 하천, 연못과 저수지, 논두렁 위를 빠르게 날아다니며 다른 곤충을 사냥한다. 몸은 전체적으로 연갈색을 띠고 크기는 48~54mm이다. 수컷은 성숙하면 배가 청회색으로 변하지만 암컷은 변하지 않는다.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풀 줄기, 나뭇가지, 모래 바닥, 돌 위에 잘 내려앉으며 4~10월에 출현한다. 암컷은 습지, 저수지, 농수로에 타수산란을 한다. 유충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오염이 심각한 웅덩이에서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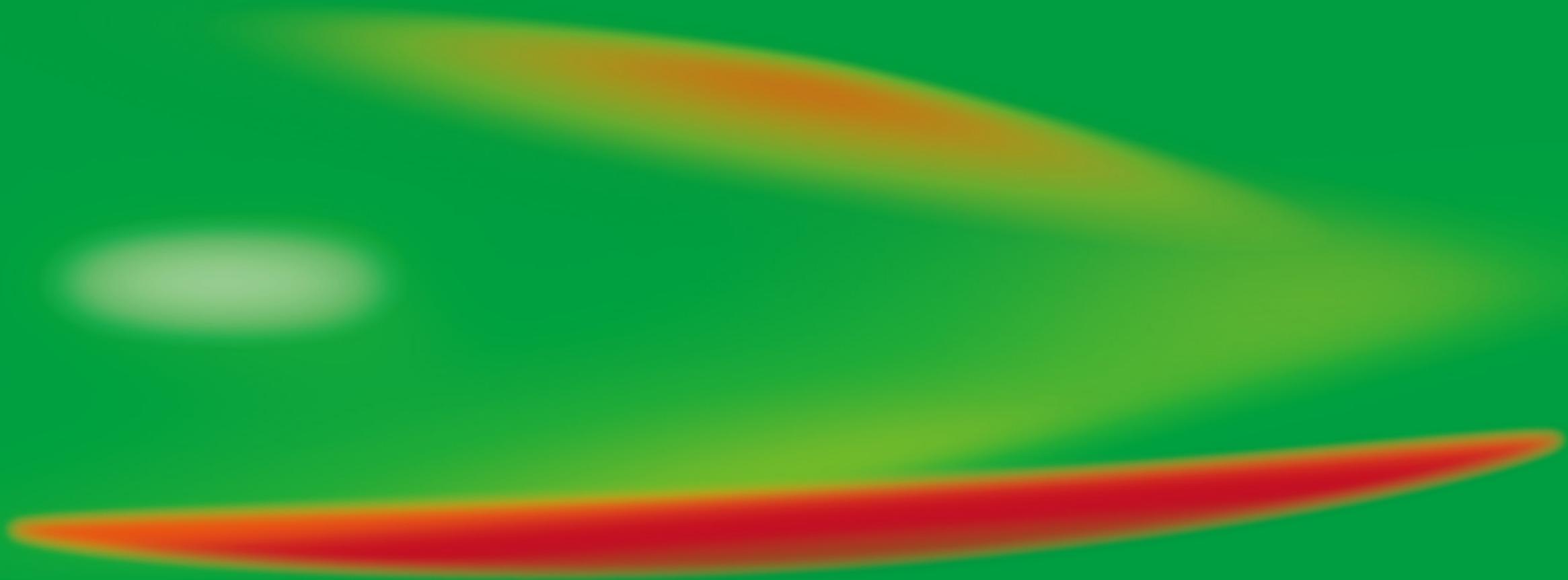


물방개(물방개과)

하천, 연못, 웅덩이에서 수서곤충과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몸은 녹흑색이고 크기는 35~40mm이다. 타원형의 몸 가장자리에 황색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방(둥글다)+개(접미사)가 합쳐져 '물에 사는 둥근 곤충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며 4~10월에 출현한다. 콩무늬의 딱지날개와 등판 사이에 공기를 저장해서 숨을 쉰다.

물땡땡이(물땡땡이과)

저수지, 웅덩이, 논 등의 고인물에서 물풀을 먹고 산다. 몸은 광택이 도는 검은색이고 길쭉한 타원형이며 크기는 35~40mm이다. 반질반질한 딱지날개에는 4개의 세로로 된 홈줄이 있다. 더듬이로 공기를 흡입하며 가슴의 털에 담아 두고 숨을 쉬며 4~11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물속에서 물달팽이나 소형 수서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겨울에 유충이나 성충으로 월동한다. 밤이 되면 환하게 켜진 불빛에 유인되어 날아온다.



비단벌레(비단벌레과)

남부 지방의 팽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 등을 먹고 산다. 몸은 전체적으로 녹색이고 붉은색 세로줄 무늬가 길게 나 있으며 크기는 30~40m이다. 반짝거리는 광택이 비단처럼 아름다워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7~8월에 출현한다. 우리나라 비단벌레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 화려한 딱지날개로 만든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되었다. 유충은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고사목을 먹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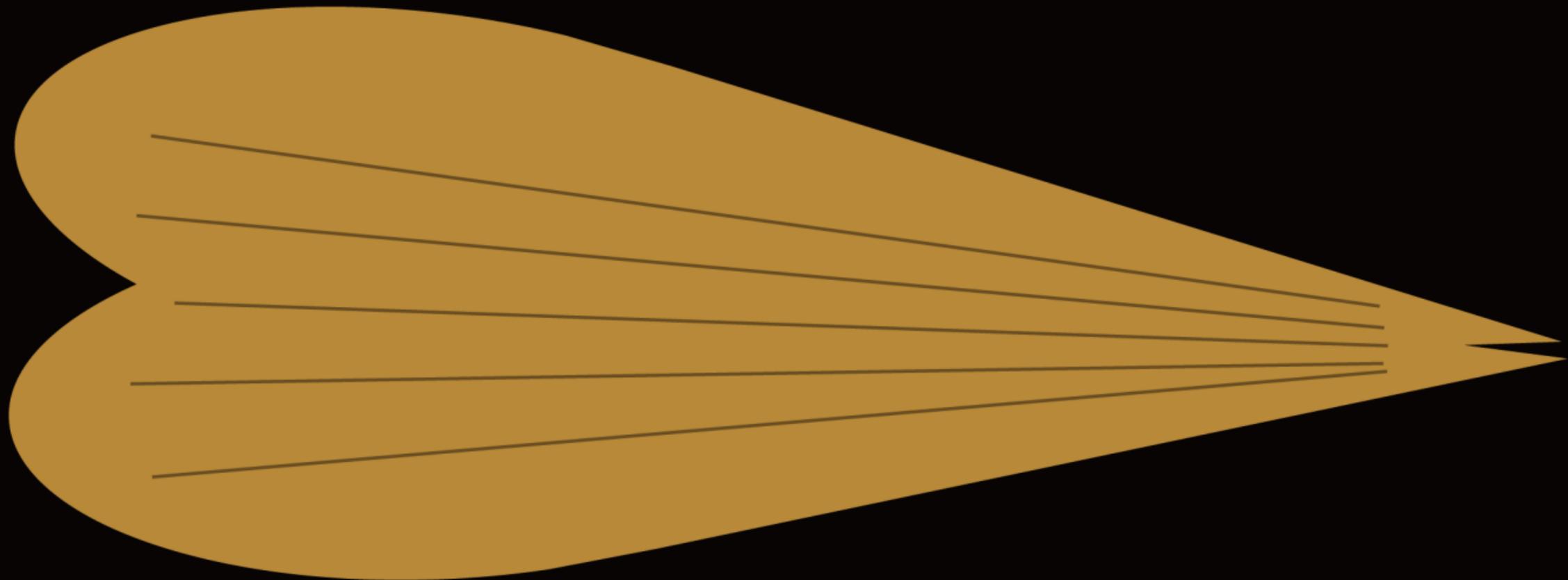
황녹색호리비단벌레(비단벌레과)

산과 들에 자라는 칩의 잎을 갇아 먹고 산다. 몸은 길고 광택이 있는 녹색이며 크기는 6.5~8mm이다. 딱지날개 아랫부분에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7~8월에 출현한다. 햇살이 몸에 비치면 비단처럼 반짝반짝거리며 몸이 매우 가늘어서 호리호리해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낮은 산지의 칩덩굴이 있는 곳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충은 칩덩굴 속을 파먹으며 산다. 겨울에 유충으로 월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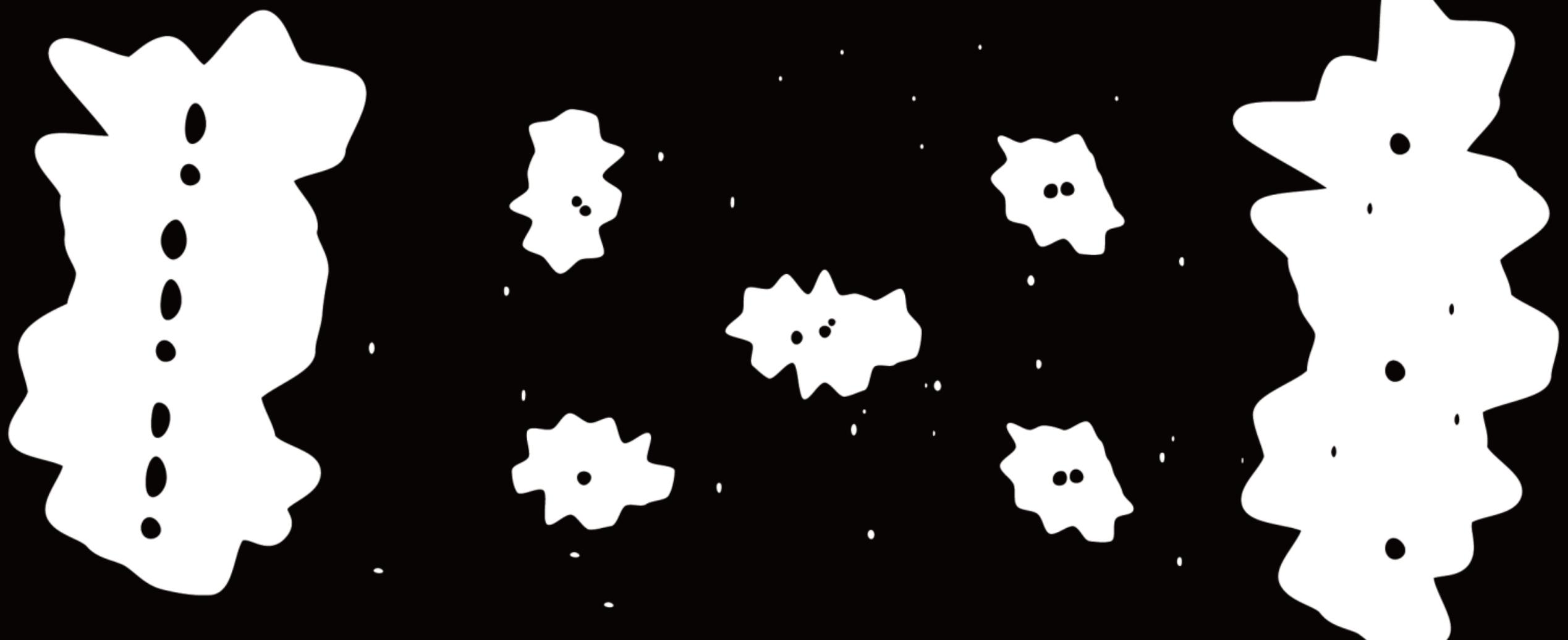
노랑무늬비단벌레(비단벌레)

숲속을 날아다니며 복숭아나무, 매화 나무, 개살구나무의 잎을 먹고 산다. 몸은 길쭉하고 흑남색이며 크기는 13mm 정도이다. 겹눈은 회갈색이고 더듬이는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며 짧은 털이 많이 나 있다. 딱지날개 아랫부분에 가로로 길쭉한 4개의 커다란 황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다. 머리의 이마 부분에도 황색 점이 있다. 산지 주변을 빠르게 날아다니며 5~8월에 출현한다. 겨울에 유충으로 월동한다.



검정테광방아벌레(방아벌레과)

낮은 산지 주변을 날아다니며 잎사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고 크기는 9~14mm 이다. 몸이 길쭉하고 가늘며 납작한 모양이다. 앞가슴등판 가운데와 딱지날개 양쪽 끝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몸 전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검은색 줄 무늬가 마치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보여서 이름이 지어졌다. 더듬이는 약간 톱니 모양이며 7~8월에 출현한다. 겨울에 풀숲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극동버들바구미(바구미과)

활엽수가 많은 숲속에 모여 나뭇진을 먹으며 산다. 몸은 검은색이고 길쭉한 타원형이며 크기는 7~11mm이다.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 끝부분은 흰색을 띤다. 전체적인 생김새가 새똥처럼 보여서 천적인 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6~9월에 출현한다. 가죽나무에 무리 지어 모여 짹짹하고 줄기나 굵은 가지의 나무껍질 속에 알을 낳는다. 유충은 나무를 먹으며 산다. 겨울에 성충으로 월동하며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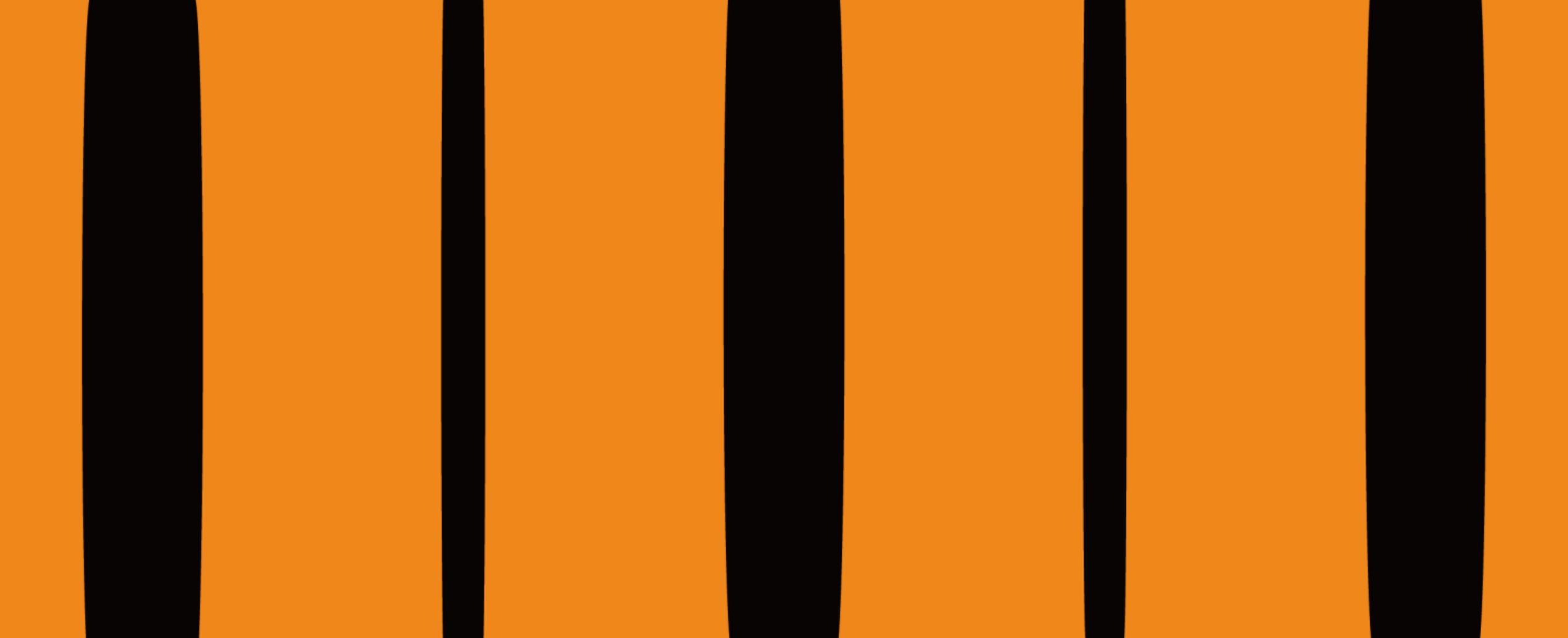
뿔나비(네발나비과)

산지 계곡 주변의 활엽수림을 날아다니며 고마리, 버드나무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날개 아랫면이 흑갈색으로 땅 색깔과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며 크기는 32~47mm이다. 머리의 아랫입술수염 부분이 뿔처럼 튀어나와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3~11월에 출현한다. 계곡 주변의 땅에 무리지어 앉아 물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충은 풍계나무, 팽나무, 왕팽나무 등을 갉아 먹고 산다. 성충으로 월동하고 연 1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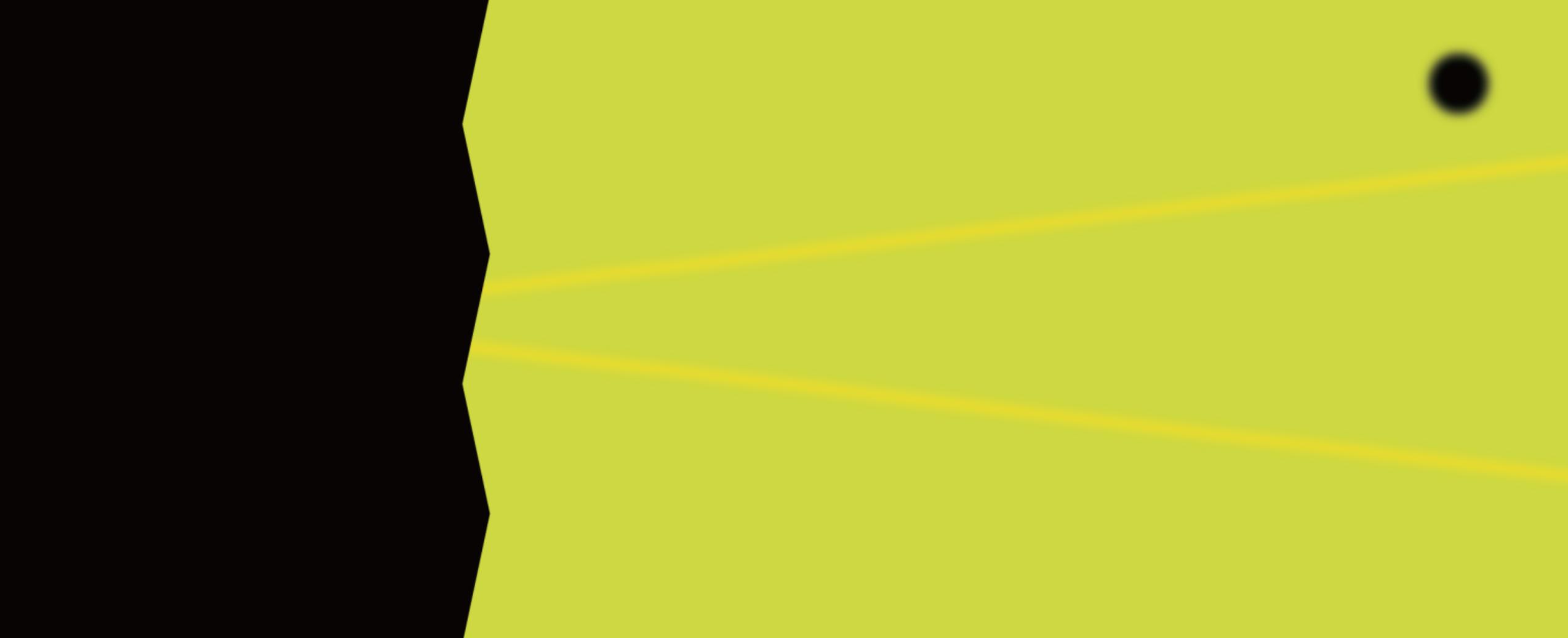
황호리병잎벌(잎벌과)

냇가, 논밭, 숲의 나무 사이를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은 황색이고 눈 부분은 검은색을 띠며 크기는 12mm 정도이다. 배는 황갈색이고 배 끝부분은 주홍색을 띤다. 몸이 호리호리하게 생겨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6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벌꽃, 쇠벌꽃 등의 풀잎을 갉아 먹으며 산다. 벌 무리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벌로 잎을 갉아 먹고 산다고 해서 '잎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호리꽃등에 (꽃등에과)

산과 들에 핀 다양한 꽃에 날아와서 꽃가루를 활아 먹고 산다. 몸은 길고 배에 검은색 줄무늬가 많으며 크기는 8~11mm이다. 몸이 매우 호리호리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11월에 출현한다. 꽃에 날아와서 바로 내려앉지 않고 꽃 주변에서 정지 비행하며 공중에서 맴돌기 때문에 '호버플라이(Hover Fly)라고 부른다. 맛을 정확히 감지하기 위해 앞다리를 비벼서 청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유충은 진딧물을 먹고 산다.



끝검은말매미충(매미충과)

산과 들에 자라는 다양한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산다. 몸은 황록색이고 머리와 앞가슴등판에 검은색 점무늬가 있으며 크기는 11~13.5mm이다. 날개 끝부분이 검은색이고 크기가 크다는 뜻의 '말'이 붙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4~10월에 출현한다. 산길이나 풀밭에서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잎에 앉아 즙을 빨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겨울이 되면 나무껍질 밑에서 성충으로 월동하고 봄에 날아다니는 모습이 관찰된다.